

예술부산

ART BUSAN MONTHLY



MUSICA VIVA chamber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8회 정기연주회

오래된 풍경의 기억을 열다

2026.4.28 화 PM 7:30

부산콘서트홀 챔버홀

주최·주관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티켓 20,000원(학생 10,000원) 문의 010-9336-2687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BNK 부산은행 SK 증권 경동건설



본 사업은 2026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6 부산음악대축제 I - IV BUSAN MUSIC FESTIVAL

예술총감독 | 김소형

04. 14. [화] - 19:30 부산음악대축제 I **신인음악회**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04. 21. [화] - 19:30 부산음악대축제 II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4 Pianos 64 Pianists)

04. 25. [토] - 17:00 부산음악대축제 III **실내악의 밤**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4. 26. [일] - 17:00 부산음악대축제 IV **오페라 갈라콘서트**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코지 판 투테 | 피가로의 결혼)

04. 14. [화] 21. [화] - 19:30
04. 25. [토] 26. [일] - 17:00





ART BUSAN MONTHLY VOL.250

2026 APRIL 4

CONTENTS

권두칼럼

06 예술의 지속을 위한 법과 제도 _ 박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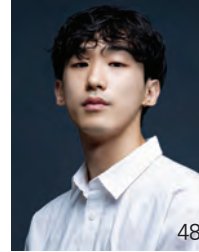
예서제서

- 08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 11 2026년 제1차 시민문예강좌 작고문인재조명
- 12 2026 부산음악대축제 개최
- 14 제23회 부산국제연극제
- 17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8회 정기연주회
- 18 2026 예술렉처콘서트 - AI 시대, 사진의 본질을 다시 묻다!
- 20 부산도시건축모형전
- 22 부산사진작가협회 신진작가 초대전
- 24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 WHO LOVES OLD THING 展
- 26 제4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 28 관객으로 들어와 백성으로 나가게 만들다
: <왕과 사는 남자>로 본 문화 파급력 _ 이선
- 30 부산의 문화예술 기획 사례II
- 목욕탕으로 부산을 브랜딩하다 _ 목지수
- 34 폐교에서 길을 묻다: 폐교 활성화 <3> _ 정달식
- 37 수로회 60주년 기념 - 제3회 水路茶花展



표지_제3회 수로다화전

2026. 3. 20. ~ 22. (재)일맥문화재단 오!초량



포토에세이

38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 _ 이상훈

수필의 뜰

42 해토解土, 그 녹녹한 비탈을 걷다 _ 심선경

인물포커스 I

46 부산건축가회 회장 김두진 _ 정혜주

인물포커스 II

48 무용가 엄승훈 _ 이선

예술가열전 243

50 문학 작가 윤경諱耕 서태수 _ 윤기선

손으로 쓴 문학

54 세상 읽기 _ 박미정

들어다보기

56 미술/ 부산미술을 이끈 화가들 _ 정혜주

58 영화/ 이상일의 <국보> _ 김민우

60 미술/ '아직_be for the meaning' _ 홍지혜

기획연재

62 역사와 함께 읽어보는 부산가요 - 제8화 「봄날은 간다」와 부산 화재 _ 이용득

66 세상의窓 - 애민愛民과 애국愛國의 결단,
역사를 바꾼 '위대한 리더십' 2제 _ 심수화

70 예총-전시-공연 뉴스

77 신간 안내

80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6년 4월 통권 250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6년 3월 26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욱(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창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혜주 편집기자_ 이선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중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술의 지속을 위한 법과 제도

글 _ 박정은 법무법인 우리마루 대표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 현황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전국의 전문예술인은 20만 7,637명이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1만 813명으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주목할 것은 활동 건수다.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합산하면 수도권 22,288건, 비수도권 22,613건으로 거의 대등하다(KOSIS 국가데이터처, 2026.3. 열람 기준). 전문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창작과 생산의 건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지방 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적은 자원으로 동등한 창작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치만으로 예술의 가치를 재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 창작의 현장은 지금 어떤 조건 위에서 있는가.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1990년대 이후 '문화산업'이라는 틀 속에서 본격 전개되었다. K-팝과 K-드라마의 글로벌 성공은 그 산업 논리의 성과를 증명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시장이 커졌다고 해서 창작 현장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의 절반 이상이 연간 창작 수입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상당수가 생계를 위해 겸업에 의존한다. 콘텐츠 산업의 외형은 성장했지만 그 산업을 떠받치는 창작자 개인의 생활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 간극을 메우는 일을 시장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 우리 헌법 제22조는 예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호하도록 명시하며, 제9조는 민족문화의 창달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예술 지원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헌법적 의무의 이행이다. 그렇다면 현행 법제는 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공공 지원 재원의 관리·배분을 담당해 왔으나 미디어 아트·디지털 퍼포먼스 등 새로운 예술 형식을 포괄하지 못한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의 권리를 사후적으로 보호할 뿐 창작 행위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2011년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고용보험 특례 도입(2020년)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수혜 범위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실효적 구제 수단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크다. 세 법률이 진흥·보호·복지라는 각기 다른 목적 아래 분산되어 있어 불안정한 수입·계약 분쟁·사회보험 사각지대라는 창작 현장의 복합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는 다른 길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프랑스의 intermittent du spectacle(앵페르미망 뒤 스펙타클)은 공연예술 종사자가 일정 기간 이상의 활동을 증명하면 비활동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특별 실업보험으로, 창작의 공백기가 소득의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가 완충 역할을 한다. 독일의 KSK(예술인사회연금)는 예술인이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예술 소비자의 부담금과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3자 부담 구조로,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도 일반 직장인에 준하는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예술인을 단지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유지해야 할 창작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예술이 세상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낭만적 수사가 아니다. 이념·종교·인종·세대·경제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경험을 공유 가능한 언어로 번역하는 예술의 역할이 더욱 긴요해진다. 21세기는 문화예술 산업의 시대이며,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물질적 생산에서 문화적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증명하고 있다.

예술의 산업적 성과는 창작의 토대가 탄탄할 때만 지속 가능하다. 창작의 토대는 결국 예술인 개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즉 법과 제도가 만들어 내는 구조적 조건에 달려 있다. 예술의 가치를 법과 제도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술이 존속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수치와 해석을 넘어 예술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비단 예술가만의 몫이 아니라 법률가와 정책 입안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2026. 4. 15. ~ 5. 23.

부산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은행본점

부산예총(회장 오수연)이 주최하는 제40회 부산청
소년예술제가 부산 전역에서 열린다. 이번 예술
제는 건축,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
예, 음악, 꽃예술, 차문화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
되며 청소년들이 예술적 재능과 끼를 펼치는 무
대로 마련된다. / 편집실

개막식

4. 25.(토) 오후 2시 부산은행본점

총 9팀이 참여하는 축하 공연이 마련된다.
청소년여는소리현의 가야금병창으로 막을 열고,
김수자박서우의 한량무가 이어진다. 이어 소프라노 안
예린이 「마중」 외 1곡을 선보이며, 유서아가 마림바 연주를 들
려준다. 스트리트댄스팀 헤이데이키즈, 부산예술회관합창
단, 드림아이어린이응원단, 부산예술고등학교의 한국
무용팀, 강호합기도 팀다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문의_051)631-1377

청소년

건축상상마당

5. 16.(토) 부경대학교
C22동(건축관) 105호

건축 분야에서는 특강 및 워크
숍(건축상상프로젝트)이 진행된다. 프로그램
에 참여한 우수 학생들에게는 대상(부산광역시장상),
최우수상(부산광역시교육감상), 우수상(부산예총회장상2, 부산건축가회
장상1)을 비롯해 특선과 입선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문의_부산건축가회 051)241-4011

청소년국악제

5. 23.(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온고지신’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된다. ‘옛 소리를 품다’에서는 김효정, 정예현, 이서현, 김서현,
박디아가 참여하며, ‘오늘의 숨결로 잇다’에서는 이다겸, 오준희,
차다연, 이지영, 노해나, 이다현이 무대에 오른다. 참여자들은
긴난봉가,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심청가, 창작무용,
가야금병창, 이매방류 승무, 채상신반설장구 등 다양한 국악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32회 부산국악대전 학생부 대상
수상자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문의_부산국악협회 051)644-5211

청소년무용예술제

4. 15.(수)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무용제 응모 부문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사회무용으로 구성되며, 초중고등학교 무용 전공
학생과 동아리, 단체(장애인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단체 부문은 10팀을 모집할 예정이며, 솔로 부문에는
제39회 전국청소년무용경연대회 대상 수상자가
참여해 무대를 선보인다.

문의_부산무용협회 051)632-5116



청소년 시낭송대회

5. 16.(토)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

청소년들의 문예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상은 대상 2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4명, 장려상 10명, 지도교사상 4명 등 총 23명을 선발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_부산문인협회 051)632-5888

학생그림공모전

5. 18.(월) ~ 23.(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응모 부문은 수채화, 한국화(수묵·채색화), 파스텔화, 판화, 민화, 이미지디자인(사고의 전환·발상과 표현), 서예, 문인화 등이며,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다.

문의_부산미술협회 051)632-2400



학생사진공모전

5. 20.(수) ~ 23.(토)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실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미발표 작품으로 출품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3명, 우수상 3명, 가작 9명, 입선 다수, 지도교사상 3명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1일 오후 5시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문의_부산사진작가협회 051)631-4111

찾아가는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 - 청소년예술어울마당

5. 9.(토) ~ 10.(일) 백양문화예술회관

'찾아가는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는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공연으로 5월 9일에 열리며,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청소년예술어울마당'은 5월 10일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연극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진로 개발과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의_부산연극협회 051)645-3759



2026청소년k-pop페스티벌

5. 23.(토)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가요 부문은 장르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댄스 부문은 힙합과 브레이크 등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초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시상은 대상 2팀(부산광역시장상, 부산광역시교육감상), 금상 2팀(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은상 2팀, 동상 2팀(부산연예예술인협회장상)을 비롯해 장려상과 인기상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문의_부산연예예술인협회 051)646-7343

부산청소년음악회

5. 15.(금)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25년 제52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우수 입상자인 청소년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플루트 박예리, 피아노 주태양, 튜바 옥재환, 바이올린 방희진, 성악 이민서, 첼로 이시현을 비롯해 앙상블팀과 영도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여해 다양한 음악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_부산음악협회 051)634-1295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4. 25.(토) 부산예술회관 회의실/4층연습실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참가 접수를 진행하며,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생 50명(예정)이 참여한다. 저학년은 꽃바구니 만들기, 중고등부는 꽃다발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3명, 장려상, 지도교사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문의_부산꽃예술작가협회 051)612-2604

**부산청소년
세계차문화예술제**

4. 25.(토) 부산은행 본점

차를 우리는 방법과 다구를 다루는 법을 배우며 인내심과 찾자리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절을 익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다도를 통해 심신 수양의 의미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_부산차문화진흥원 051)809-1551



2026년 제1차 시민문예강좌 작고문인재조명

33년간 오대양을 누빈 선장시인, 김성식 부산 시단의 소금, 이상개



2026. 3. 20. 오후 4시 영광도서 8층 문화홀

부산문인협회(회장 박해숙)의 2026년 제1차 시민문예강좌는 김성식, 이상개 작고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시의 세계를 깊이 조망한다. 이번 행사는 변중환 시인·문학평론가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김성식(1942~2002)은 선장으로서 30여 년간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200여 편의 해양시를 썼다. 그의 시에서 바다는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자 고뇌의 공간이었다. 김성식의 바다 시는 우리에게 없었던 본격적인 해양문학의 효시라 평가된다. 그는 1962년 월간 《소설계》에 해양 단편소설 「남지나해(南支那海)」를 발표하며 문학 활동을 시작했고, 197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청진항」으로 등단했다. 그의 작품 세계의 본령은 바다이며, 바다의 특성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선원의 의식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김성식의 문학 세계는 “아직 향해 중”이다.

이상개(1941~2022)는 1960년대 문단 활동을 시작해 [시와 자유], [잉여촌]의 동인이었으며, 부산의 1세대 출판사인 도서출판 빛남 대표였다. ‘소박하고 정갈한 소금 같은 시인’이라 불리는 이상개의 작품 세계는 고뇌와 걱정에서 관조와 달관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훈 문학평론가는 “이상개라는 이름은 부산에서 시를 쓰는 특정 시인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다”라고 말한다. 이상개는 시를 상처에 비

유한다. 즉 상처의 흉한 꼴이나 희미한 흉터를 시라고 여긴다. 시인은 바다와 파도 소리를 그리워했으며, 이 그리움은 영원으로부터 노를 저으며 출렁거리는 원무(圓舞)처럼 다가오는 둥근 고향의 땅과 나무와 하늘, 새와 진달래, 동물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이상개는 1980년대 ‘시심천심(詩心天心)’을 주장하다가 1990년대에는 ‘시여, 독침이 되라고 거침없이 말하며 시의 순수성과 효용성을 강조했다.

문의 051)632-5888 / 편집실

시인 詩人

이상개

시인은 시를 쓰지만
시는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시가 사람을 만든다.

시인은 사람이지만
시는 결코 사람이 아니다.

요즈음은 잘못된 시가
잘못된 사람을 만들고 있으니.

시 참으로 부끄럽기만 하다.

클래식의 다채로운 향연

2026 부산음악대축제 개최

2026. 4. 14. ~ 26.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챔버홀

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은)에서 주최하는 부산음악대축제는 매년 다양한 음악 장르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사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이다. 올해 축제는 총 네 차례의 무대로 구성되어 신인 음악가부터 실내악,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클래식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음악평론가의 해설이 더해져 관객들은 클래식 음악을 더욱 쉽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신인음악회〉 4월 14일(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부산음악대축제의 신인음악회는 재능있는 신인을 발굴하고 부산지역 음악계를 이끌어 갈 신인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신인음악회는 경성대,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졸업생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친 10명의 음악가가 출연한다. 해당 무대에서는 『Il Barbiere di Siviglia』, 『Manon』, 『Attila』, 『Pagliacci』 4곡의 성악 무대와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트롬본,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 연주가 펼쳐질 예정이다.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 Grand Piano Festival〉 4월 21일(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은 부산지역 대학 음악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4개 팀과 부산음악협회 신인 음악가 4팀이 참여해 총 8팀의 그랜드 피아노 앙상블 무대를 선보인다. 그랜드 피아노 4대와 64명의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풍성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단일 악기인 피아노로만 구성된 앙상블의 깊은 음악성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실내악의밤〉 4월 25일(토)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실내악의밤에서는 아홉 개의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꾸며낸다. 실내악 앙상블을 비롯해 피아노 앙상블, 현악사중주, 가야금 앙상블, 클라리넷 등 다양한 악기의 개성있는 앙상블을 통해 음악이 가진 깊이와 넓은 스펙트럼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오페라 갈라콘서트〉 4월 26일(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부산청년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Cosi fan tutte」와 「피가로의 결혼Le nozze di Figaro」을 선보일 예정이며 음악, 연기, 서사가 어우러진 오페라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이번 부산음악대축제에는 신진 음악가 발굴부터 다양한 앙상블, 오페라 무대까지 클래식 음악의 폭넓은 매력을 시민들과 나누며 부산 음악 문화의 발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된다. 앞으로도 부산음악대축제가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열정과 꿈을 지원하고 부산 클래식을 선도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발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문의_051)634-1295 / 편집실





[개막작] 알파고_리 희생의 이론 AlphaGo_Lee, Theory of Sacrifice

‘차이와 반복’을 통한 다양성 **제23회 부산국제연극제**

2026. 5. 9. ~ 17.

영화의전당 부산시민회관 어댑터씨어터 밀락더마켓 유엔평화공원 등

제23회 부산국제연극제(집행위원장 손병태)가 오는 5월 9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전역의 극장과 야외 공간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극제는 ‘차이와 반복(Difference & Repetition)’을 주제로 열리며 14개국에 참여해 총 46개 작품(예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예술적 언어가 만들어내는 다양성과 창조적 반복의 의미를 조명하고,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소개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초청공연과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분연극제’를 비롯해 거리극 참가 프로그램 ‘Dynamic Street & 체험 ZONE’, 창작자와 관객이 만나는 ‘아티스트 토크(ARTIST TALK)’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_051)802-8003 / 편집실, 사진 제공_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알파고_리: 희생의 이론AlphaGo_Lee. Theory of Sacrifice>

5. 9. ~ 1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폴란드 | STUDIO theatergallery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역사적 대국을 무대 위 퍼포먼스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이번 부산국제연극제를 통해 아시아 초연으로 관객과 만난다. 퍼포먼스와 영상, 디지털 이미지를 결합한 무대를 통해 알고리즘 시대 속 인간의 판단과 선택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특히 라이브 퍼포먼스와 디지털 인터페이스,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실시간 영상, 설치 작업을 결합한 무대를 통해 인공지능 절대성의 신화를 해체하고 그 이면에 숨은 권력 구조를 드러낸다.

폐막작 <메리 고 라운드MERRY-GO-ROUND>

5. 16. ~ 17.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헝가리 | NATIONAL THEATRE OF BUDAPEST in collaboration with HUNGARIAN NATIONAL DANCE ENSEMBLE and its orchestra

1956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동명의 헝가리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이번 부산국제연극제를 통해 아시아 초연으로 선보이며 사랑과 결혼, 공동체의 질서를 둘러싼 이야기를 산문·음악·무용이 어우러진 서정적인 무대극으로 풀어낸다. 헝가리 연출가 아틸라 비드난스키가 연출을 맡았으며 부다페스트 국립극장과 헝가리 국립무용단, 오케스트라가 함께 참여해 헝가리 민속무용과 라이브 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해외 우수작 초청공연 <탐앤타팜Tom at the Farm>

5. 12. ~ 13.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브라질, 포르투갈 | Quadro Vivo

브라질을 비롯해 캐나다·프랑스·스위스·벨기에·영국 등 100여 개 도시에서 공연되며 국제적 명성을 얻은 작품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시골 농장을 찾

은 주인공이 그곳에서 진실을 숨기는 침묵의 규칙과 마주하게 되며, 침묵과 진실 사이의 선택을 통해 폭력과 권력의 구조를 드러낸다. 원작자 미셸 마르크 부샤르로부터 “가장 강렬한 프로덕션”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동성애 혐오의 문제를 넘어서는 현대적 고전으로 평가된다.

국제교류 초청공연 <리처드 3세 : 더 맨Richard 3. The Man>

5. 1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루마니아 | “Tony Bulandra” Theatre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인물 리처드 3세의 내면과 욕망을 탐구하는 작품으로 독백과 관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질문한다. 역사와 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대를 통해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권력의 매혹을 드러내는 강렬한 연극적 경험을 제시한다.

국내 우수작 초청공연 <하뽀Haboob>

5. 14. ~ 15.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대한민국 | MJB theater

IMF와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한 ‘영원’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담은 채 행복해질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



[국제교류 초청공연 Global Networks] 리처드 3세 더 맨 Richard 3. The Man



[폐막작] 메리 고 라운드 MERRY-GO-ROUND

간다. 그러나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서 거대한 선인장과 마주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직면하게 되고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K-stage

〈유랑 Vagabond〉

5. 10. ~ 11. 어댑터씨어터 2관

대한민국 | HADA ART Company

동화 속 '악당'으로 불려 온 인물들이 '악소장대'라는 유랑극단이 되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떠돌며 공연을 이어간다. 마지막 공연의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악이었는지 질문하며 벌을 끝낼 것인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유랑〉은 몸과 음악, 웃음과 환상이 교차하며 선과 악의 경계를 묻는 피지컬 마스크 씨어터 작품이다.

〈글뤽 아우프 Glück auf〉

5. 11. ~ 5. 12.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대한민국 | Theater company TAEYANGEUI BADA

1977년 독일 탄광 가스폭발로 홀로 고립된 동생 앞에 10년 전 그곳에서 죽은 형의 혼이 나타나며 삶과 죽음 사이의

대화를 나눈다. 구조의 순간조차 삶의 아이러니를 드러내는 가운데, 2인극 〈글뤽 아우프〉는 희망과 절망의 경계에서 인간이 과연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삶과 죽음 -아주 오래된 이야기- Life & Death -the old, old story-〉

5. 13. ~ 14. 어댑터씨어터 2관

대한민국 | Art group C

민간인 학살과 오늘의 전쟁을 한 무대에 겹쳐 놓으며 죽음의 기억을 마주하게 하는 작품이다. 신발과 신체, 탈춤과 프로젝트이 교차하는 장면 속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우리가 그들의 죽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다.

〈코뿔소 Rhinocéros〉

5. 14. ~ 15.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대한민국 | Theatre company "Ddungddanji"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차례로 코뿔소로 변하기 시작하며 집단적 변화와 동조의 공포가 확산된다. 〈코뿔소〉는 변형되는 극장 공간 속에 관객을 놓아 두며 모두가 변해가는 상황에서 끝까지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반쫄가리자작 The Cloven Viscount〉

5. 16. ~ 17. 어댑터씨어터 2관

대한민국 | Creative Organization Sungchanpa

전쟁으로 몸이 반으로 갈라진 자작 메다르도가 '절대적인 악'의 오른쪽 반쪽만으로 돌아와 영지를 지배하고, 이후 사라졌던 '절대적인 선'의 왼쪽 반쪽이 나타나며 인간의 완전함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광대극과 인형, 오브제, 그림 자극이 결합된 무대를 통해 선과 악으로 분열된 인간의 모습을 비추며 우리가 어떤 반쪽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는다.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8회 정기연주회

오래된 풍경의 기억을 열다

2026. 4. 28. 오후 7시 30분 부산콘서트홀 챔버홀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음악감독 박경희)의 제38회 정기연주회 <오래된 풍경의 기억을 열다>가 오는 28일 부산콘서트홀 챔버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탈리아의 신고전주의 작곡가 레스피기의 작품과 쇼스타코비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하여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 8번」을 현악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재해석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작품은 그의 전 작품 중 가장 자전적이고 강렬한 비극성을 띤 걸작으로, 표면적으로는 '파시즘과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헌정되는 듯했으나, 실제로는 쇼스타코비치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진혼곡에 가까워 처절한 서사성을 보여준다. 또 영국 민요의 소박한 정서를 표현한 현악 앙상블인 영국의 작곡가 존 루터의 「현을 위한 모음곡」도 이어간다.

<오래된 풍경의 기억을 열다>는 20세기 전후 유럽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도 각 나라의 멜로디를 사용하여 고풍스러운 풍경을 만들어 낸 다양한 작품들을 무지카비바 앙상블의 독창적인 음악 언어로 들려줄 예정이다. 올해는 정수란 작곡가의 창작곡을 더해 현대음악의 공감대도 넓혀간다.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은 미국 링컨홀, 뉴저지 시청, 독일 베를린 도이치콘서트홀, 러시아, 몽골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는 부산 지역 음악 단체로, 이번 공연에는 우소라 박주연 전명희 연주가가 참여한다. 봄 내음이 가득한 4월의 끝자락에 첼리스트 전명희의 해설과 함께 시대를 넘나드는 현악 앙상블의 깊이 있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문의 010-9336-2687 / 편집실





2026 예술리처콘서트 AI 시대, 사진의 본질을 다시 묻다!

2026. 2. 28.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가 마련한 사진혁명 특강에서 '예술에서 자산으로'를 주제로 사진 예술과 AI 기술이 만나 우리에게 펼쳐는 새로운 변화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조명했다. 이번 강연은 AI 포토저널리즘 및 이미지 산업 분야 전문가인 오승환 강사가 말아 사진의 본질부터 시가 예술구조에 끼친 변화와 이미지의 자산화 가능성까지 폭넓게 다루며 수강자들에게 신선한 시각을 제공했다.

사진은 더 이상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라 작가의 시선을 담아내는 해석의 장치이다. 오승환 강사는 사진이 언어 이전에 인간 내면의 감정과 존재를 표현하는 원초적 매체임을 설명하며 카메라가 현실을 복제하는 도구가 아닌 인간의 시선을 담은 존재임을 강조했다. AI 이미지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사진의 본질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며 오히려 인간의 존재와 본능적 기억에 대한 욕구를 기술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역설했다. 경계가 아닌 '배움'과 '활용'을 촉구하며 강연의 문을 열었다.

과거 사진 예술은 장비, 노출, 타이밍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찍었는가'와 '얼마나 잘 찍었는가'와 같은 기술과 재현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생성형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진 촬영의 기술적 장벽이 낮아지고 이미지 자체의 희소성은 줄어들었다. 이에 '왜 찍었는가'라는 사진의 의미와 맥락, 기획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AI 프롬프트(prompt)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 주류가 되면서 창작자의 질문과 사유가 예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더욱 부상할 것이다. 이로써 사진작가는 단순 촬영자를 넘어 '시선을 설계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더 나아가 본 강연에서는 이미지의 자산화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며 실연까지 이어갔다. 글로벌 스톡 이미지 시장에서는 예술성보다 '기능적 활용성' '명확한 목적성과 메시지' '시리즈 확장 가능성' '맥락 적합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에 따른 세부 요소를 자세히 설명했다. 즉, 예술적 아름다움만을 중시한 '예쁜 이미지'가 아닌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승환 _ AI를 활용한 이미지

이미지가 시장에서 선택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예술가의 시선이 현실과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이자 촬영한 이미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오승환 강사는 자신이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해 사진 작업 완성도를 극대화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해 수강자들의 AI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사용하는 다양한 AI tool부터 강의에 참석한 협회별(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음악 등) 맞춤형 적용 사례를 직접 시연해 사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수강자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특강은 AI를 단순히 기술적 위협으로만 보지 않고 철학적 확장으로 바라보며 예술가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했다. '예술에서 자산으로'라는 주제처럼 사진은 여전히 인간의 시선으로 완성되는 예술이며 동시에 새로운 가치 구조 속에서 지적·물질적 자산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문의_051)631-4111 / 클_이선





뉴비기닝展(2025 굿바이 메모리展)
일상을 품은 건축
‘부산도시건축모형전’

2026. 2. 24. ~ 27.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부산 곳곳에 지어진 다양한 건축물과 디자인 작품을 축소 모형으로 재현하여 시민들이 도시 공간과 건축을 보다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 ‘부산도시건축모형전’이 부산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건축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우리 일상과 문화의 중요한 일부임을 체감하며 건축물의 구조와 미학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가까이서 살펴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건축가회 김두진 회장은 “부산 시민들이 부산에서 지어진 건축물 모형을 통해 건축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라며 전시 취지를 밝혔다. 건축은 도시의 생활 환경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설계 과정과 공간 구성이 다소 어렵고 낯설게 다가올 수 있



리얼도량건축사사무소



(주)라라호호 건축사사무소 - 혼돈한 혁이네

다. 하지만 이번 전시는 그동안 각종 건축 공모전에서 호평받은 우수 모형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함으로써, 전시된 모형을 통해 관람객들은 설계자의 의도와 건축물의 기능을 생생히 확인하며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현실감 있게 감상할 수 있었다.

또한 전시 오프닝 행사에서는 모형을 출품한 건축가들이 참석해 자신이 설계한 건축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작품을 기획한 배경과 건축적 아이디어, 공간 활용, 실

제 건축 현장 과정에서 마주한 고민 등을 공유하며 건축의 기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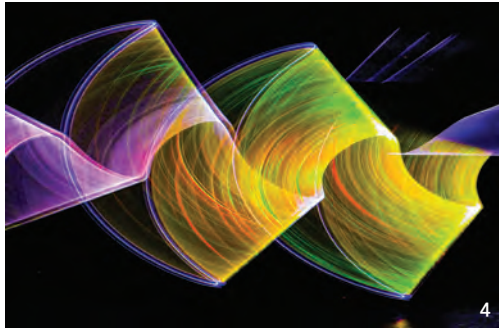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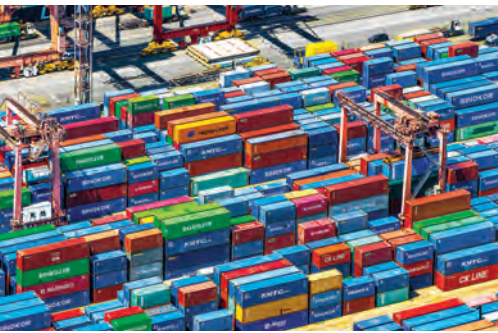
요소뿐 아니라 공간을 바라보는 건축가의 시선과 철학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건축은 주변 도시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지역 특성을 반영했는지도 중요하다. 이번 행사는 건축이 기능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문화를 품으며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친히 연결된 복합적 공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부산도시건축모형전’은 건축학과 학생, 건축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람객층이 방문해 각자의 시각으로 도시와 건축을 새롭게 바라보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했다. 앞으로도 건축 문화가 확장되어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부산의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문의_051)241-4011 / 편집실

(주)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좌천활력어울림파크



2026 뉴비기닝전 부산사진작가협회 신진작가 초대전

2026. 3. 17. ~ 20.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3·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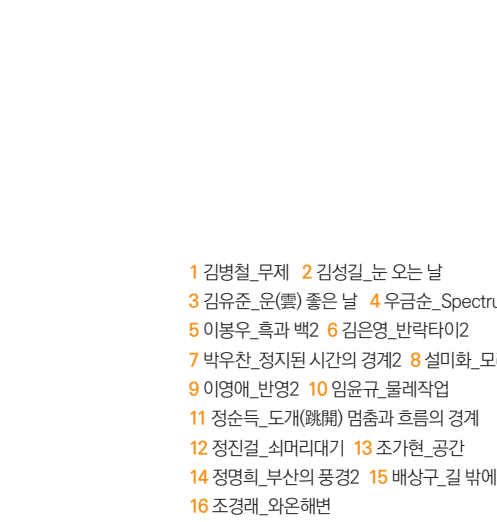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가 2026년 새로운 출발을 맞아 '부산사진작가협회 신진작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공모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협회 정회원과 준회원 가운데 부산 사진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작가 40여 명이 참여했다.

작가들은 기를 쓰고 기묘한 대상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어디에나 볼 수 있는 흔한 것들을 독특한 시선을 통해 특별한 상태로 포착해 낸다. 컨테이너 하적장에 쌓인 원색의 구조물,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사유하는 장면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을 제시한다.

언제나 최고의 셔터 찬스는 한 번뿐, 좋다고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셔터를 눌러야 한다. 전시에 참여한 신진 작가들은 망설이지 않고 치열하게 셔터를 눌렀고 가장 좋은 순간을 영원히 기록했다. 기성세대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재해석한 그들의 전시가 부산 사진예술의 내일을 향하고 있다.

문의_051)631-4111 / 편집실



- 1 김병철_무제 2 김성길_눈 오는 날
- 3 김유준_운(雲) 좋은 날 4 우금순_Spectrum
- 5 이봉우_흑과 백2 6 김은영_반락타이2
- 7 박우찬_정지된 시간의 경계2 8 설미화_모래폭풍
- 9 이영애_반영2 10 임윤규_물레작업
- 11 정순득_도개(跳開) 멈춤과 흐름의 경계
- 12 정진걸_쇠머리대기 13 조가현_공간
- 14 정명희_부산의 풍경2 15 배상규_길 밖에 부는 바람3
- 16 조경래_외은해변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WHO LOVES OLD THING 展

2026. 4. 20. ~ 26.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부산에서 수제화 제작과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슈메이커 함정훈 작가의 전시 'WHO LOVES OLD THING' 이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문화가있는날 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제화 방식과 수공예 작업을 통해 '잘 낡음'의 미학과 수제화의 가치를 조명한다.



Archive 33(Pecos boots)

신발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함정훈 작가에게 신발은 그날의 분위기와 태도를 결정하는 물건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물건'이라 말한다. 이러한 인식은 그의 신발 제작 과정의 철학이 되었다. 작가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신발을 신고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에 대한 재미있는 상상이 신발을 만드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러한 철학은 작품 곳곳에 깊이 스며 들어 있다.

함정훈 작가는 오래된 물건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과 그 속에 담긴 향수에서 작업의 출발점을 찾는다. 특히 가죽 신발이 사용되며 남기는 주름과 흠집, 사용자의 발에 맞게 점차 변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흔적은 그저 마모가 아니라 시간과 인간의 몸이 만나 만들어낸 소중한 기록이며 작가에게는 작업의

중요한 미학적 요소로 자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적인 수제화 제작과 가족의 경년 변화 그리고 수제화 제법으로 완성된 다양한 오브제를 함께 선보인다. 함정훈 작가는 결과물의 화려함보다 장인의 손길과 제작 과정에서 비롯되는 진정성에 집중하며 신발이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시간과 함께 완성되는 물건임을 전달하고자 한다.

‘파티나 컨트리 Patina Country’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작가는 작업 세계를 확장하고 있다. ‘잘 낡은 것들을 모아놓은 나라’라는 콘셉트 아래, 자신만의 제작 방식과 염색 기법을 가지고 한국 수제화 문화와 기술의 존재를 알리고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물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이 프로젝트는 수제화의 지속 가능성과 예술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작업이다.

자동화와 대량생산이 만연한 시대에 100%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수제화는 어쩌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듯 보이나, 작가는 인간의 손길이 담긴 불완전함에서 오히려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전시는 사라져가는 전통 제화 기술을 재조명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기대된다.

4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는 핸드메이드 가죽공예 제작 프로그램에서는 신발 모양 키링, 카드지갑, 신발 모양 연필꽂이 등의 오브제 중 하나를 선택해 직접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가죽을 다루며 공예의 과정과 재료의 물성을 경험할 수 있다. 회차별 참여 인원은 4명으로 예약제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www.b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빛으로 돌아본 영화의 본질 43rd 부산국제단편영화제

2026. 4. 23. ~ 28.

영화의전당, BNK부산은행아트시네마 모퉁이극장

1

아시아 최대 규모 단편영화 축제인 제4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BISFF)가 '시네마 & 빛(Cinéma & Lumière)'이라는 주제로 관객을 찾아온다. 이번 영화제는 영화 예술의 근원이자 필름 위에 빛이 새겨지며 이미지가 탄생하는 순간에서 출발해 영화의 본질을 재조명하며 영화가 감각적 창작 경험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탐구한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매년 영화의 미학을 다층적으로 탐색해 왔다. 지난해(2025) '사운드'에 이어 올해는 시각적 근원인 '빛'을 중심으로 영화 예술의 본성과 미래 가능성을 살펴본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영화 제작과 확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AI와 XR, 3D, 인터랙티

브 작품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영화 미학을 선보이며 실험성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확장한 단편영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의 주빈국인 프랑스는 영화의 탄생을 이끈 루미에르 형제와 조르주 멜리에스의 활동지이자 인상주의라는 빛의 미학이 태동한 나라이다. 빛을 회화의 핵심 요소로 탐구하고 시작된 나라라는 점에서 주제와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그리고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영화제 동안 프랑스 누벨바그 단편선 외에 다양한 프랑스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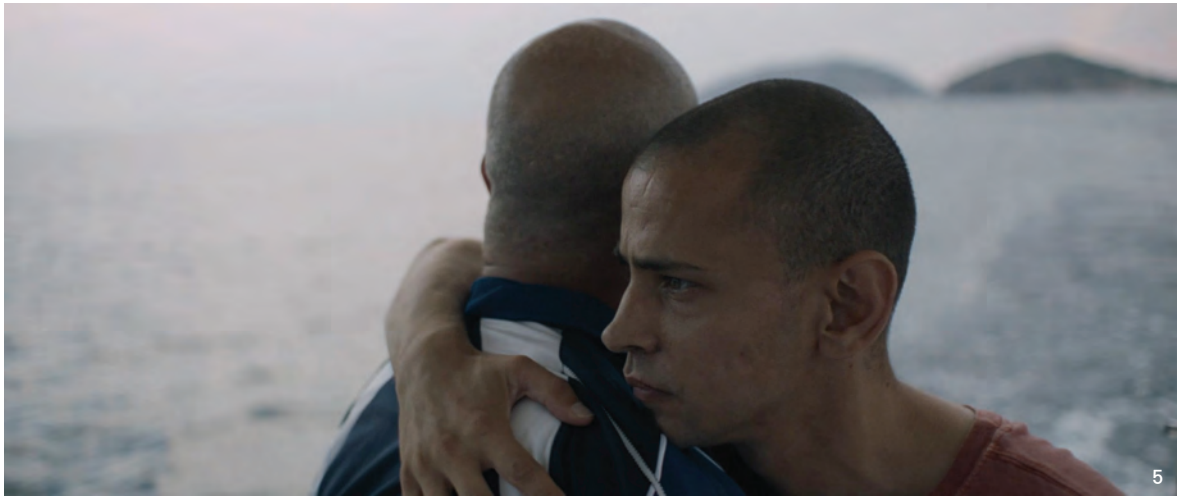


3



4

1 <There's always something missing (especially when you don't know what you look for)>_Paul Rigoux
2 <Cinema That Never Was>_Mark Wachholz 3,4 <O Seasons O Castles>_Agnès Varda



이번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역대 최다 출품 기록을 세우며 아시아 단편영화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제경쟁 부문에는 124개국에서 5,077편, 한국경쟁 부문에는 889편이 접수돼 총 5,966편이 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이중 엄선된 40편의 국제경쟁작과 20편의 한국경쟁작이 본선에 진출하며 최종 수상작은 영화제 기간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이란 출신 배우 겸 영화감독 샤디 카람루디Shadi Karamroudi가 경쟁작 감독으로 부산을 찾는다. 그는 제4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수상자로, 대표작 <It Turns Blue>가 2023년 SXSW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2024년 미국 영화 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주관하는 '아카데미 골드 펠로우십 포 우먼'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세계 영화계에서 주목

받는 신진 여성 영화인의 행보를 이번 영화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43회를 맞이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국내 최초의 단편영화제로서 매년 세계 각국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단편영화를 소개하며 아시아 대표 단편영화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 다양한 문화와 창의성을 담은 단편영화를 감상하며 미래 영화 창작의 흐름과 확장된 예술적 표현을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감독과 영화인들이 펼치는 생생한 현장과 교류의 장에서 단편영화가 전하는 충만한 울림과 함께 영화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_051)742-9600 / 편집실



5 <I'M GLAD YOU'RE DEAD NOW>_Tawfeek Barhom

6,7,8 <Story of Water>_François Truffaut, Jean-Luc Godard

왕과 사는 남자



관객으로 들어와 백성으로 나가게 만들다

: <왕과 사는 남자>로 본 문화 파급력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극장 개봉 36일째(2026. 03. 11. 기준) 1,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최근 2년간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는 영화 <파묘>, <범죄도시4>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며 게다가 흥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개봉 5일 만에 100만, 12일 200만, 18일 500만, 33일 1,100만 관객을 넘어서며 개봉 4주 차에 접어들어도 관객 수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여 한국 영화 흥행의 새로운 사례

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사극의 명작 <광해, 왕이 된 남자>(1,232만 명)의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마을의 부흥을 위해 스스로 유배지를 선택한 촌장 엄홍도와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왕 단종(이홍위)의 영월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통상적인 권력 중심 사극과 달리 유배지에서의 삶과 인간적 관계에 집중한 점이 차별화된 매력으로 작용했다. 덕분에

관객은 단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간 단종을 둘러싸고 있던 '업적이 적은 비운의 왕'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영화 속에서 재현된 그의 삶과 면모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했다. 역사 속 이름에 불과했던 단종이 영화라는 예술 장르로 되살아난 것이다.

연출 또한 인상적이다. 영화는 철저히 단종의 시점에 서기보다 그를 바라보는 촌장 엄홍도와 마을 사람들의 시선으로 단종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를 통해 슬픔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도 관객이 주변 인물의 시선을 따라 스스로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관객은 단순한 감상자가 아니라 백성의 위치에서 단종의 삶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영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감정 몰입은 공감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의 새로운 관객 참여 문화로 이어졌다. 최근 SNS에서는 AI에게 “단종과 세조 시대에 내 본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묻는 것이 유행한다. 영화 속 재현되었던 과거를 자신의 이야기로 연결해 보는 새로운 방식의 해석과 참여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영화 속 인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단종얌이’와 함께 N차 관람도 이어지고 있다.

홍행과 관심은 스크린을 넘어 극장 밖 현실로도 확장되고 있다. 영화의 배경지인 영월군의 청령포와 장릉을 찾은

관광객 수가 올해 개봉 2개월 만에 10만 명을 돌파(3월7일 14시 기준 10만2,143명)했다. 단종 관련 도서 판매 역시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영화 개봉 이후 한 달간(2. 4.~3. 3.) 단종 관련 도서 판매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2,565.4% 증가했으며 고전 소설 『단종애사』 판매량은 약 80배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단종 복위 운동의 주역 성삼문 선생의 생가가 있는 충남 홍성군 홍북읍 방문객도 늘어나며 역사 유적지 탐방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더불어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지역 행사도 활발하다. 제천시민의날과 단종문화제에 장항준 감독이 방문을 예고했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도 단종문화제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처럼 <왕과 사는 남자>는 작품의 흥행을 넘어 역사 인식과 문화 소비 방식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영화 한 편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역사 유적지로 이끌고 책을 다시 읽게 만들며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의 질문으로 확장하고 있다. 예술은 늘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고 감동하게 만드는 것처럼 스크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현실의 공간과 기억 속으로 이어질 때, 가벼운 감상을 넘어 사회와 공동 기억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글 이선
사진 제공 (주)쇼박스



부산의 문화예술 기획 사례Ⅱ <목욕탕> 목욕탕으로 부산을 브랜딩하다



부산탕

오늘날 대다수의 도시브랜딩은 본질적으로 마케팅의 논리 위에서 작동한다. 인접한 경쟁 도시와 비교해 무엇이 더 잘 팔릴지, 어떤 키워드를 선정해야 외지인들에게 더 자극적으로 보일지가 최우선 순위다. 도시는 어느덧 시민의 삶터가 아니라 시장에 내놓은 매끄러운 상품처럼 다뤄진다.

브랜드의 본질은 원래 '나다움'의 발견이고, 그 고유한 정체성을 타인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브랜딩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체성을 극적으로 포장하고 가공하는 기술로 전락해 버렸다. 브랜드라는 이름

의 탈을 쓴 마케팅. 이것이 도시 브랜드 업계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한 낡고 거대한 굴레다.

도시브랜드라는 다양성에 새롭게 눈뜨기

이 문제의 뿌리에는 '도시에는 반드시 단 하나의 핵심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자리 잡고 있어서다. 과연 도시에 단일한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하는가? 아이덴티티란 본래 복수(複數)의 형태다. '나'라는 한 사람에게 수많은 얼굴과 자아가 있듯, 부산에도 수많은 개의 부산이 존재한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 심지어 우리가 애써 감추고 싶어 하는 낙후된 골목마저도 '이건 부산답지 않아'라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를 도시의 일부로 긍정할 때 비로소 진짜 도시의 얼굴이 드러난다. 도시는 이러저러한 배경과 과거를 짊어진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곳이다.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나와 다른 타자의 존재를 매일 인정하고 부딪히는 연습이다. 그 인정의 총합이 도시의 진짜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한다.

부산의 살결, 목욕탕이라는 공간의 생활문화사

시민의 일상적 공간을 브랜드의 관점으로 재해석할 때, 부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바로 '목욕탕'이다. 부산은 명실상부한 목욕탕의 도시다. 최전성기였던 1996년에는 부산 시내에만 무려 1,500개의 목욕탕이 있었고, 지금도 600여 개의 목욕탕이 여전히 동네 골목을 지키며 성업 중이다. 인구 대비 목욕탕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라는 주장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도대체 왜 부산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근대적 배경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산은 개항과 함께 급격히 팽창한 도시다. 외세에 의한 강제 개항이라는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 급격한 변화는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일본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동래온천이 근대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온천에 가기 위해 전차가 놓이며 도시의 축이 형성되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전쟁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피란민들이 좁은 부산으로 몰려 들었고, 산복도로 끝까지 판잣집이 들어섰다. 땅은 비좁고, 사람은 넘쳐났으며, 주거 환경은 지극히 열악했다. 개인 집에 욕실이라는 개념이 희박했던 그 시절, 공중목욕탕은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니라 생존과 위생을 위한 필수 공공시설이었다.

이후 산업화 시기는 목욕탕의 확산에 불을 지폈다. 도시 곳곳의 공장단지에는 일거리를 찾아든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와 기름때를 씻어주는 목욕탕들이 나란히



자리 잡았다. 부산은 ‘달목욕’이라는 독특한 정기간 문화의 발상지이자, 전 국민의 필수품인 ‘이태리타올’과 ‘등밀이기계’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곳이기도 하다. 부산은 그야말로 ‘목욕 도시’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생적인 문화가 도시의 골목마다 스며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에 드러내고 브랜드화하는 일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부산의 목욕탕 자산을 도시브랜드로 만들어가는 ‘매끈’한 일
필자는 도시브랜드링이라는 일을 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하면 ‘진짜답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러다 하나둘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의 굴뚝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이곳이야말로 부산의 일상 그리고 소중한 생활문화사가 박제되지 않고 흐르고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매끈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부산의 목욕탕을 알리기 시작한 첫 캠페인은 목욕탕이라는 낯은 공간을 부산의 새로운 브랜드 아이콘으로 부활시키는 것. 바로 다음 세대를 목욕탕이라는 현실 세계로 다시 불러내는 일이었다. ‘목욕탕 팝업스토어’라는 파격적인 행사를 통해 태어나서 한 번도 대중목욕탕에 가본 적 없는 어린아이들과 목욕탕을 ‘낯은 것’으로만 치부하던 MZ세대를 동네 목욕탕으로 모이게 했다. 목욕탕은 단순히 몸만 씻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수다를 떨고 소통하는 공동체의 거점임을 그들의 감각으로 직접 느끼게 한 것이다.

매끈연구소는 목욕탕을 기록하고 알리는 일에 본격 매진했다. 부산 목욕탕의 진면목을 담은 잡지를 창간하고 주인장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부산의 목욕탕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욕탕 탈의실에서



북토크를 열기도 했다. 일본의 '센토린 Sento Run'에서 영감을 얻어 부산의 해안을 달린 후, 목욕탕에서 시원하게 피로를 푸는 '스무스런 Smooth Run' 프로그램은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재개발로 인해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목욕탕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현실을 목도하며, 우리는 공간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1981년 건축된 목욕탕을 3D로 스캔했다. 물리적 공간은 사라져도 그 구조와 온기, 타일의 질감까지 디지털 아카이브로 영구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최근 운영 중인 '목욕탕 기록학교'와 '사우나 스페셜'은 이런 노력의 결정체다. 부산 시민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부산의 목욕탕을 제대로 즐기는 법을 교육하고 그들 스스로가 목욕탕의 기록자가 되도록 돕는다. 특히 일본에서 온 관광

객들은 부산 특유의 세신 洗身 문화와 정감 넘치는 분위기에 엄지를 치켜세운다. 외지인의 눈에 비친 부산의 목욕탕은 그 어떤 화려한 랜드마크보다 더 '부산스러운' 강력한 브랜드였다.

**매끈한 진심이 일어나
갈 목욕도시 부산의 미래**

바야흐로 사우나 붐의 시대다. 이제 목욕과 사우나는 웰니스와 결합하며 젊은 층의 가장 뜨거운 자기관리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



목욕탕 판이

나 수요가 폭발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정작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목욕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갈 곳 잃은 젊은 '욕객 浴客'들이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고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이다. 최근 동래와 해운대 온천장에 젊은 여행자들이 넘쳐난다. 이들에게 온천은 시작일 뿐, 진짜 목적지는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동네 목욕탕이다. 이들은 낡은 타일 위에서 여행의 피로를 씻어내고, 목욕 후 가벼워진 몸으로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로컬 푸드를 즐기는 목욕탕 투어의 묘미에 열광하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 위에서 목욕탕이라는 자산으로 부산의 진짜 이야기를 전달할 때다. 동네 목욕탕을 중심으로 이어온 공동체의 온기는 부산만이 가진 독보적인 도시 브랜드의 원형이다.

부산은 이미 충분히 뜨겁고, 그 열기를 품은 목욕탕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가장 부산다운 미래를 속삭이고 있다. 이 매끈한 진심이 부산을 넘어 세계인의 감각을 깨우는 독보적인 도시 자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글_목자수 씨이트브랜딩 대표-매거진 <집안목욕탕> 발행인



목욕탕 내부



폐교된 부산 좌천초등학교 모습. 부산일보DB

폐교에서 길을 묻다 : 폐교 활성화 <3>

폐교는 도시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공공 자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폐교 활용을 둘러싼 복잡한 제도와 행정 절차는 오히려 폐교를 장기간 비어 있는 공간으로 방치되게 만든다. 공공 자산의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도시는 황폐화되고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폐교에서 길을 묻다: 폐교 활성화' 세 번째 연재는 '폐교를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열어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편집자 주)

폐교, 어떻게 열어둘 것인가가 중요하다

도시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공공 자산은 무엇일까. 새로운 도로도 공원도 아니다. 지금 한국 도시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비어 있는 건물'이다. 특히 부산은 학령 인구 감소와 원도심 인구 이탈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폐교와 유휴 공공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가 되고 있다. 문제는 건물의 수가 아니라 그 이후의 선택이다. 폐교는 계속 생겨나지만, 활용 방안에 대한 상상은 늘 '전면 리모델링'이나 '매각'이라는 두 갈래로 수렴해 왔다. 과연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지금의 부산에 적절한 해법일까.

그동안 폐교 재생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공간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본 점이 크다.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미 인구가 줄고 생활권의 활력이 약해진 지역에서 상설 프로그램을 꾸준히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나면 방문객

은 줄고 운영 콘텐츠도 빠르게 고갈되기 마련이다.

운영 체계의 불안정도 문제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시설을 조성하는 예산은 비교적 쉽게 확보되지만, 그 공간을 매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주체와 인력, 거버넌스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문은 열려 있어도 공간을 지속적으로 움직일 동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여기에 복잡한 제도와 행정 절차도 발목을 잡는다. 폐교 부지는 교육청, 지자체, 민간이 동시에 얽혀 있어 용도 변경과 협의 과정이 길어지기 쉽다. 그 사이 건물은 오랫동안 비어 있게 되고 '빈 건물의 시간'이 쌓인다. 결국 시설은 사용되기도 전에 남아가고, 지역사회에는 또 하나의 계획만 남는 일이 반복된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정책 논의는 건물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어떤 기능을 영구히 넣을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 불확실한 수요, 운영 주체 부재라는 벽 앞에서 수많은 계획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그 결과는 비어 있는 공공



부산진구 놀이마루. 옛 중앙중학교를 재활용했다. 부산일보DB

자산의 장기 방치였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누적 폐교는 3,955곳이고, 이 가운데 용도를 찾지 못한 '미활용 폐교'가 367곳에 이른다. 폐교는 많지만 쓸 곳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쓸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느리다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말 공공 공간은 영구적이어야만 지속 가능한가. 지속성을 곧 영구성으로 동일시해 온 사고가 오히려 도시의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몇몇 해외 사례는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독일 베를린의 템펠호프 공항은 폐쇄 이후 곧바로 완성된 공원으로 탈바꿈하지 않았다. 활주로는 열린 채로 남겨졌고, 시민들은 걷고, 자전거를 타고, 임시 정원을 만들었다. 이 공간은 '완공된 공공 공간'이 아니라 '열린 상태의 공공 자산'으로 기능하며 10년 넘게 도시의 핵심 공공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이 사례는 폐교는 아니다. 하지만 영구적 설계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을 허용하는 태도라는 점이다.

영국 런던 쇼디치의 '박스파크' 역시 시사점이 크다. 컨테이너로 구성된 이 공간은 애초에 '5년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출발했다. 그러나 임시성은 약점이 아니라 실험의 조건이 되었다. 소규모 창업, 문화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빠르게 교체되며 공간은 끊임없이 갱신됐다. 박스파크는 영구 건축이 아닌 운영 구조와 시간 계획이 공공성을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다. 쇼디치는 '전 세계 트렌드가 궁극하면 영국 쇼디치를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광받는 곳이 됐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접근은 점차 하나의 이론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시계획가 피터 비숍은 '일시적 공간 사용이 도시 회복력과 사회적 혁신을 촉진한다고 분석했다. 또 도시 재생 전문가들은 공공 자산의 공백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기 도시 전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종종 말한다.

이제 이 논의를 부산의 폐교로 가져와 보자. 만약 폐교를 30년짜리 시설로 설계하지 말고, 3년짜리 공공 공간으로 설

정한다면 어떨까. 3년 동안 시민 실험실, 지역 아카이브, 청년 작업실, 노인 돌봄 거점, 문화 프로그램이 순환적으로 들어오고 나간다. 운영 주체도 고정하지 않는다. 지자체는 최소한의 안전과 개방 조건만 관리하고, 프로그램은 지역 단체와 시민에게 맡긴다. 실패해도 괜찮다. 3년 뒤에는 다시 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유연성이야말로 지금 부산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공공성이다.

가정을 하나 해보자. 부산 서구는 부산에서도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동시에 의료·복지 시설은 부족하다. 이곳의 폐교를 특정 공간으로 영구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흔하지만, 운영 부담은 크다. 대신 3년 한시적 공공 공간으로 열어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기능을 바꾸는 모델을 상상할 수 있다. 오전에는 노인 돌봄과 건강 프로그램, 오후에는 돌봄 노동자 교육과 지역 회의, 주말에는 주민 장터와 공공 급식이 열린다. 학교라는 공간이 지닌 개방성과 안전성은 이런 복합적 사용에 적합하다. 건축은 거의 손대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것은 운영 규칙과 관리 구조다.

폐교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도 바뀌어야 한다.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열어둘 것인가'다. 건축 설계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구조, 관리 규칙, 참여 방식이다. 즉 공간을 설계하기보다 시간을 설계해야 한다. 이 전환은 단순히 가시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책 전략이 될 수 있다. 한시적 사용을 제도화하고 공공 자산의 '비완결 상태'를 인정하는 순간, 도시는 훨씬 가벼워진다.

부산은 변화를 미룰 여유가 없다. 인구는 줄고 공공 자산은 남는다. 모든 건축물을 고쳐 쓰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필요한 것은 완성된 건축이 아니라 작동하는 시간이다. 폐교를 언젠가 쓸 공간으로 남겨두는 대신, 지금 쓸 수 있는 공공성으로 전환할 때다. 영구히 짓지 말고 제대로 쓰자. 이것이 지금 부산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글_정달식 부산일보 논설위원



수로회 60주년 기념

제3회 水路茶花展

2026. 3. 20. ~ 22. 오!초량

수로회 60주년을 기념해 오!초량에서 제3회 수로다화전이 열렸다. 1925년에 지어진 적산가옥 오!초량의 구석구석에 꽃예술의 향연이 더해져 기품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이번 전시는 국가무형유산 제124호 궁중채화장 황수로 박사와 (재)일맥문화재단 최성우 이사장이 한국 전통 차 문화의 진흥과 꽃예술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문의_051)463-5652 / 편집실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

밤이 내려앉은 바다 앞,
음악이 흐르자 분수는 빛을 입고 춤을 춘다.
물줄기는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붉은빛과 초록빛,
보랏빛이 어둠 속에서 서로 어우러진다.
바람에 흩어지는 물안개는 별빛처럼 반짝이며 순간의 아름다움을 만든다.
잠시 스쳐가는 물과 빛의 공연이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바다와 빛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을 바라본다.
다대포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화려하게 기억 속에 남는다.

글 사진_이상훈 부산사진작가협회 사업 간사





해토^{解土}, 그 녹녹한 비탈을 걷다

꽃소식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은 발바닥에 닿는 말랑한 대지의 기운이다. 봄 햇살이 겨우내 짝 닫혔던 보도블록 사이의 얼어붙은 입술을 툇 건드리면, 딱딱하게 굳어 있던 땅의 긴장이 마법처럼 스르르 풀려난다. 정오의 별이 고인 자리마다 대지는 깊숙이 품고 있던 시린 숨결을 아지랑이로 뱉어내고, 지나는 이의 발걸음을 붙드는 녹녹한 속살을 드러낸다.



구두 끝에 진흙이 들러붙으면 사람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걸음을 재촉하지만, 사실 이 질척임은 오랜 경적을 푼 대지가 봄이라는 거대한 생명 앞에 바치는 뜨거운 항복 선언이다. 차가운 얼음의 결속 대신, 세상의 연약한 뿌리들이 마음 놓고 파고들 수 있도록 기꺼이 제 몸을 녹여 노긋하게 풀어낸 땅의 배려다.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단호한 직선 아래,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세상의 무게를 받아내는 진흙의 보드라운 감촉이 마음 끝에 닿는다. 제 형체를 고집하지 않고 스스로 무너져 내린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풍경은, 삶의 모서리를 깎아내며 둥글어지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날카로운 경계가 허물어져 보드라운 흙이 된 너른 품을 보고 있자니, 길목마다 새겨진 오랜 인연들이 떠오른다. 연둣빛 잎사귀를 띄워내던 시절에 만났던 일곱 처녀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굽이굽이를 돌아 가정을 꾸리고 삶의 용이를 단단히 박았다. 비록 두 명은 먼 타지로 떠나갔지만, 남은 이들은 여전히 서로의 안부를 챙기며 생의 불씨를 지긋이 살려간다. 한때는 직함을 부르며 엄격히 거리를 두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더께가 쌓이며 그 높았던 계단 위로 어느새 푸른 이끼가 덮였다. 딱딱한 호칭을 건어낸 자리에는 ‘언니’와 ‘동생’이라는 살가운 부름이 등지를 틀었다. 거친 파도를 함께 넘으며 삭혀온 믿음이 잘 익은 장맛처럼 깊게 배어 나오는 계절을 우리는 함께 지나고 있다.

하지만 그토록 촘촘한 우정 사이에도 서늘한 바람이 분 적이 있다. 모임 때마다 김해에서 부산까지 먼 길을 오며, 번잡한 도심의 교차로 앞에서 한없이 위축되던 만언니의 서툰 운전이 발단이였다. 그녀에게 도시의 도로는 거대한 미로와 같았다. 내비게이션의 차가운 기계음 앞에서 자주 방향을 잃었고, “30미터 앞 우회전”이라는 소리에 마음이 급해져 50미터 전부터 핸들을 꺾어버리기 일쑤였다. 어지럽게 얽힌 고가도로와 차들의 행렬 속에서 그녀의 어깨는 늘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만언니는 십 년째, 오직 내비게이션 없이도 당도할 수 있는 그 소박한 돈가스집만을 유일한 모임 장소로 고집했던 것이다.

모임을 마치고 지하철역까지 태워주겠다는 그녀의 차에 올라탈 때면, 우리는 안전벨트를 왼손등이 하해지도록 무의식적인 힘을 보태곤 했다. 살얼음 깔린 비탈길을 내려가듯 위태로운 밤 운전은, 운전대를 잡은 만언니나 동승한 우리에게나 기운을 다 쏟아내야 하는 고단한 여정이였다. 그녀가 길을 잘못 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덜컹거리는 차체의 움직임에 맞춰 우리의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다. 불안을 농담으로 덮어 보려 애썼지만, 마음속엔 이미 숨길 수 없는 피로감이 차올랐다.

만언니에게 그 돈가스집은 세상의 복잡한 길로부터 도망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심리적 요새’였다. 언니와 학창 시절을 공유한 여주인은 우리가 입구에 들어서면 기척만으로도 분주하던 칼질을 멈추고 봄별 님은 환한 웃음부터 마중 내보냈다. 빈 접시 위로 슬며시 없어지는 텅과 식후의 과일 조각에는 세월로 몽근하게 고아낸 정이 배어 있었다. 그 투박한 쟁반 위에서 세상의 각박한 인심에 활귀어진 마음을 잠시 내려놓곤 했던 시간들. 하지만 익숙함은 감사를 무디게 만들었다. 십 년째 요지부동인 메뉴와 낡은 식탁에 점차 질려가며, 우리는 그녀의 안도감을 헤아리기보다 타인의 취향을 무시하는 이기심이라 치부하기 시작했다.

결국 사달이 났다. 총무가 모임 장소를 변화한 도심으로 옮기자, 밤눈 어두운 김해 언니는 단체 대화방에 차가운 침묵만큼이나 날 선 문장 하나를 던져두고는 소식을 끊었다. 그녀가 부재한 모임 날, 우리는 오랜만의 해방감을 만끽하며 연기 자욱한 곱창집에 둘러앉았다. 누군가는 십 년 세월을 한 가지 메뉴에 저당 잡혔던 억울함을 토로했고, 또 누군가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참았어야 했다며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소맥 잔을 부딪치며 미뤄둔 보상 심리를 채워 갔으나, 불판 위의 기름이 격렬하게 튀어 오를수록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리만치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만언니의 부재가 유난히 험한 바람길을 냈다.

왁자지껄한 소음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 열기 너머로 마주 앉은 우리의 시선은 좀체 서로에게 닿지 않았다. 누군가는 젓가락 끝으로 타버린 마늘 조각을 집요하게 골라냈고, 누군가는 빈 술잔의 테두리만 무의미하게 훑었다. 단단한 결속이라 믿었던 것은 사실 서로를 밀어내는 차가운 얼음의 속성이었다. 제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 상대를 밀쳐낼수록, 매끄러운 고립의 빙판은 더욱 견고해졌고 우리는 그 위에서 위태롭게 홀로 버틸 뿐이었다.

이 전달 수 없는 정적을 깨트린 것은 장소를 번갈아 정하자는 한 친구의 나직한 제안이었다. 그 말 한마디는 시린 어깨 위로 포근한 담요를 둘러주듯 서로의 빈틈을 덮어주었다. 만이의 고집은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서툰 발걸음을 들키지 않으려 뒤통치에 잔뜩 힘을 준 몸짓이었다. 내 안의 콘크리트 같은 직선이 누군가의 여린 살점을 긁는 모서리였음을 깨닫자, 딱딱했던 마음의 각角이 허물어졌다. 그 빈자리에 순한 훅살이 차오르며 보드레한 평온이 스며들었다. 얼어붙은 땅이 녹을 때 신발에 진흙이 묻는 것을 피할 수 없듯, 사과와 양보라는 질척이는 수렁을 통과해야만 했다. 자존심이 조금 깎이고 민망한 말이 오가는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정의 속살을 만지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비포장도로’였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오래된 돈가스집으로 향한다. 십 년 넘게 가격을 올리지 않은 주인장의 투박한 손맛과 그 자리를 지켜주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 예전과는 다른 빛깔로 다가온다. 만



언니 또한 두 달에 한 번은 낯선 이정표를 따라 핸들을 돌리는 용기를 낸다. 여전히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준다면 유턴 지점을 지나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지만, 이제 그녀의 운전석 옆엔 '민음'이라는 든든한 길동무가 앉아 있다. 설령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조금 돌아가면 그뿐이라는 여유가 우리 사이에 넉넉한 숨통을 틔워준다.

현관에 진흙 묻은 구두를 나란히 놓고 젖은 헝겊을 꺼낸다. 가죽 끝에 점점이 들러붙은 흙을 닦아내다 문득, 그 질척이는 시간을 기꺼이 함께 건너온 얼굴들을 떠올린다. 우정의 진정한 품격은 평탄하게 닦인 길 위를 우아하게 걷는 보폭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발목을 붙잡는 진흙탕 속으로 기꺼이 발을 내딛는 용기, 서로의 신발에 묻은 흙의 빛깔이 닳아 있음을 보며 안도하는 투박한 일체감에 있을 것이다. 깊숙이 빠져들던 그 무른 비탈이 실은 뽀뽀 얼어붙은 관계를 가장 먼저 녹여낸 봄의 시원^{始源}이었다. 신을 닦아내는 손끝에 머무는 잔열이, 곁을 지켜준 이들의 마음자리처럼 뽀뽀하게 번져온다.

클_심선경 수필가

예술을 담는 건축, 건축이 만드는 예술

부산건축가회 회장 김두진



- (주)SJ C&C건축사사무소 /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장 / (사)건축문화연구센터 이사장
- (사)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사)대한설비공학회 정회원
- 부산주거포럼 공동대표 / 부산국제건축제 이사
- (사)한국건축가협회 선거관리위원장 / 부산광역시 경관위원
- (사)대한건축학회 작품상 / 부산국제건축대전 완공부문 BEST AWARD
- 저서 『건축가와 떠나는 미술관기행』(2018)

지난해 부산건축가회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두진 회장은 취임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단체를 이끌어 왔다. 아울러 2025년부터 부산예총 부회장을 겸임하며 건축 분야를 넘어 지역 예술문화 전반의 행정까지 함께 책임졌다. 그는 건축가회를 운영하는 일과 부산예총의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일은 분명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며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예술을 바라보게 된 변화를 드러냈다. 인터뷰에서 마주한 김 회장은 부산건축가회의 향후 계획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선순환적 활동에 대한 견해를 차분히 풀어냈다.

#1. 부산건축가회의 올해 핵심 사업과 과제

올해 부산건축가회의 가장 큰 사업은 ‘대한민국건축문화제’의 부산 개최다. 한국 건축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가 단위 행사로 16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다. 김 회장은 이를 “부산 건축의 수준을 가늠하고 지역 건축가들을 대외적으로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부산건축가회가 부산예총 산하 단체인 만큼 건축과 타 예술 장르 간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구상 중이다. 그는 건축을 공간예술로 규정하며 공간이 다양한 예술을 담아내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을 공간 안에서 결합하는 실험을 시도하고자 하며,

이러한 시도는 시민들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를 탐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건축가회의 국제적 행보도 주목된다. 협회는 세계건축가연맹(UiA)에 가입된 단체로, 202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처음으로 전시관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완공을 앞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맞물려 세계 건축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다. 김 회장은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부산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부산이 세계건축수도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국제디자인워크숍’ 역시 중요한 연례 프로그램이다. 부산국제건축제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이 워크숍은 해외 건축가와 지역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OMA의 크리스 반 두인이 참여해 건축을 넘어 출판·전시·브랜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설계에 환원하는 방식에 대해 강연했다. 올해 역시 건축의 확장된 역할을 조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부산주거포럼’은 정책과 실전을 연결하는 플랫폼으

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시의 공동으로 출범한 이 포럼은 단순한 담론 형성을 넘어 실제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거버넌스 구조를 지향한다. 올해는 5월 한국주거학회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와 다양한 주거 환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젊은 건축가들을 위한 전시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된다. 도모현에서 진행되는 전시로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목표로 한다. 김 회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건축가들은 부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기에 이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갈매랑축제'와 '부산국제건축제'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젊은 건축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선보이고 평가받는 과정이 곧 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지역 예술 생태계의 안정적인 플랫폼 구축이야말로 인재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2. 삶을 담는 그릇, 건축 이야기

과거 부산 범일동의 조선방직 공장 건설 당시, 단 하루 벽돌을 나르거나 시멘트를 섞었던 일용직 노동자들조차 “내가 저 건물을 설계하고 지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건축이 단일한 건축가의 머릿속에서 탄생하는 독립적인 예술 작품이 아니라 특정 시대의 자본력과 기술력, 무수한 타인의 물리적 노동이 필연적으로 결합하여 구축되는 “사회적·집단적 생산물”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일상적인 동선과 삶의 방식, 문화양식을 조직하는 체울적인 조건이자 환경으로서 우리의 일상이자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현대 도시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서 나타나는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계획은 인간의 생활 감각, 이른바 ‘휴먼스케일’을 벗어나 삶의 연속성을 단절시킨다는 것이다. 건축과 도시는 집합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문화까지 변화시킨다고 강조한다. 단지의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공간구획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성과 유기적 동선을 단절하여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고립된 공간과 사회 속에 머물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입체적 도시 구조’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 내 상부에 보행 중심의 공공 동선을 조성해 공간을 더욱 다층적으로 활용하면 단절된 기능적 경계가 아닌 가치의 연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수직으로 분리된 공간을 90도 전환해 바라보면 공간의 경계점이 공간의 연결점으로 변한다’는 그의 설명은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은 부산이 추진 중인 ‘15분 도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부산건축가회는 1957년 한국건축가협회로 출발해 1962년 지역 건축가들의 노력으로 조직된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지역 건축문화의 기반을 다져왔다. 김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협회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협회가 단순한 직능 단체를 넘어 건축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을 돌아보며 김 회장은 지난 한 해를 함께한 구성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모든 행사와 모임마다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부회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부산건축가회가 더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조직을 움직이는 동력은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그 축적된 힘이 부산 건축의 다음 단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글 인물사진 정혜주



삶과 춤이 만나는 순간, 무용가 **염승훈**

수상경력

2025 제34회 전국무용제 solo 부분 중구청정상 동상 수상
 2025 MODAFE 제44회 국제현대무용제 Spark Place 심사위원상 수상
 2025 한국무용교수총연합회 비전 무용가상 수상
 2023 제4회 BIDE코리아댄스그랑프리 금상 수상
 2021 제25회 새물결 춤 작가전 우수무용인상, 남자주연상 수상

공연이력

2025 제34회 전국무용제 solo 부분 <제> 안무 및 출연
 2025 MODAFE 제44회 국제현대무용제 Spark Place
 <믿음 안에서> 안무 및 출연
 2024 THE PARK DANCE <BALLOON> 출연
 2024 Random Art Project 기획공연 <이루 말할 수 없는...> 출연
 2024 A.M.A TEMPORA CONTEMPORA 이탈리아 레체 초청작
 <III> 안무 및 출연
 2024 더파크댄스 프로젝트 #4 동시대의 본능 <BLIND> 안무
 2024 MODAFE <Default> 출연
 2022 더파크댄스 <the moment Death and life>
 등 다수

염승훈에게 무용은 삶의 리듬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감각과 같다. 무대 위에서 느끼는 강렬한 에너지와 감각을 깨우는 전율로 자신을 표현한다. 무용은 그에게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다. 그래서 그는 무용에 빠진 자신을 “도파민 중독” 같다고 말한다. 무대에서 느낀 강렬한 감각은 그를 다시 춤의 세계로 이끈다.

무용이 처음부터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염승훈의 춤은 중학교 시절 비보이에서 시작했다. 활발한 학생이었던 그는 교사의 권유로 현대무용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며 본격적으로 무용을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기보다 ‘해야 하는 일’에 가까웠다고 한다. 염승훈이 현대무용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부터이다. 박근태 교수의 작업에 참여하며 춤의 의미와 무대에서의 감각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무용은 의무가 아니라 몰입의 대상이 되었다.

무용가로서 자신의 길을 확고히 다진 순간은 2022년 <The Moment Death and Life> 무대에 섰을 때였다. 무대에서 ‘표면적인 보이는 것’에 집중하던 그는 공연 도중 예상치 못한 감정이 밀려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무대, 공간, 음악, 관객이 어우러진 순간 깊이 감동하며 자신이 무대를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리고 무용의 길을 계속 걸기로 다짐했다.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무대가 있다. 2025년 MODAFE Spark Place에서 선보인 <믿음 안에서>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자전거를 타고 놀던 편안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추억과 그때의 안정감과 신뢰를 무대에 남기고자 했다. 작품 속 무용수들은 서로의 몸을 의지하며 혼자서 할 수 없는 동작으로 ‘믿음’을 표현했고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를 몸의 움직임으로 풀어냈다. 본인의



기억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 감정과 움직임의 조화로 잘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그에게 특히 애정이 남는 무대다. 이 작품은 제44회 MODAFE 국제현대무용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무용가에게 평생 이어지는 신체 관리와 안무 창작의 고민은 끊임없이 뒤따른다. 하지만 그는 그 무게에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이다. 힘든 순간이 있어도 춤과 관련된 일이나 활동에 몰두하면 자연스럽게 잊히기 때문이다. 안무 기획·창작 또한 그렇다.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억지로 꺼내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노트에 기록해 두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간다. 그가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오히려 현실적인 제약에 비롯된다. 원하는 연출이 있어도 제작비 문제로 일부 장면을 포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할 상황에 놓일 때마다 상상했던 무대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할 때가 그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라 한다.

염승훈에게 무대는 특정한 메시지를 설명하는 공간이라기보다 감각을 나누는 자리다. 관객이 작품의 의미를 정답처럼 찾기보다 감각적으로 작품을 보길 바란다. 창작 의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해석은 관객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관객이 하나로 정해진 해석에 갇히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를 감상하고 그 과정에서 비롯된 다양한 감정이나 경험을 얻어가길 바란다.



이러한 염승훈의 무대 철학은 작품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는 '몸의 대화'라는 무용의 본질에 집중하며 특별한 기획보다 움직임 자체에 힘을 둔다. 높이 뛰어오르거나 바닥 가까이 내려앉는 등 순간적으로 숨을 삼킬 만큼 역동적인 동작을 통해 순간의 긴장으로 관객을 이끈다. 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무대에서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부딪함과 희열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한다.

“안무가이자 교육자로 알려지고 싶어요.”

그는 무용수로서 무대에 서는 것보다 안무를 통해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창작의 과정을 더 즐긴다. 대학 시절 안무가 역할 경험이 그 계기가 되었다.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 안무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안무가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동시에 교육자로서도 기억되는 것이다. 춤을 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춤을 가르치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며 학생들과 몸을 움직이며 춤을 나누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춤은 그에게 단지 직업이 아니라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무대 위에서 몸으로 감정을 나누고 일상에서 떠오른 생각을 움직임으로 풀어내 작품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그의 삶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언젠가 '염승훈의 춤'이라는 하나의 장르로, 춤을 통해 또 다른 움직임을 전하는 교육자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그는 오늘도 새로운 움직임을 고민하고 있다.

글_이선

낙동강을 닮은 문학 작가

운경韻耕 서태수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시조문학》 등단(1991)
- 《문학도시》 수필 등단(2005)
- 《한국교원신문》 수필 당선(2006)
- 낙동강문학상 수상(2008)
- 제31회 부산문학상 대상 수상
- 부산수필문학상 외 다수 수상
- 수필집 『조선녘에 버린 수필』(2017)
- 평론집 『명수필 작법 현장분석』(2023) 외
- 『논술의 논리』 『고교엘리트문학』 외



세상 사람들은 맑고 깨끗한 물을 좋아한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낙동강이란 이름을 얻기까지, 그 강물은 태백시를 지나 영남 지역을 가로질러 부산의 하구에 닿았다. 낙동강의 하구, 강서구에는 낙동강을 아끼고 사랑하는 문학 작가가 있다. 낙동강을 가까이하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아직도 강물의 조화로운 물결을 다 알지 못한다는 작가를 부산예술회관 3층 한올집에서 마주했다.

작가는 여전히 소탈하고 검소한 모습 그대로였다. 작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생긴 남자들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허세로 꾸민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 삶에 열정적이며 세상일에도 진솔한 말과 행동에서 신뢰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는 김해시와 창원시의 경계에 걸쳐 있는 불모산 자락 대청천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에 부모님께서 낙동강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여 낙동강에 대한 추억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그리고 팔 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으니, 생득적으로 일찍 사회성을 익혔을 것이라며, 늦둥이라서 모친께서 가끔 “막내가 장성하는 모습을 보고 죽어야 할 터인데” 하시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잠기기도 했다.

여름에는 강물에서 물장구치며 놀았고, 겨울에는 얼음지치기하는 등 강물에 동화되어 청년이 되어어도 낙동강을 떠나지 않았다. 모래톱과 갈대밭에 찾아오는 철새들을 보면서 주관적인 정서를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하던 것을 계기로 대학에서 진로를 선택하며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하게 되었다. 여러 물줄기를 흡수해야 강물이 되듯이 소설은 김정한 교수에게서, 자유시는 서립환 영문과 교수에게, 시조는 최동원 교수의 평가와 영향을 받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3학년 담임을 맡

았다. 국어선생이니 모든 장르의 작품을 써야 한다는 스스로의 책임감으로 소설과 시·시조 그리고 수필과 마지막에는 평론까지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에 작가의 문학적인 열정이 부럽기도 하다.

첫 낙동강 연시조는 1975년 구포다리 위에서 낙동강 홍수를 보면서 쓴 작품으로 「강」이라는 제목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낙동강 연작으로 좁힌 것은 80년대 중반 이후로 다른 주제는 창작하지 않고 오로지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심혈을 기울였다. 시조를 쓰면서는 내면의 강직함을 정서와 철학으로 융화해 환경과 아우르고 강과 원형적 상징성을 문학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방의 문인들에게 낙동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넓혀 주기 위해 주제가 있는 ‘낙동강문학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리하여 2007년 제1회 낙동강문학상 제정 취지문을 발표하고, 홍보물과 상세한 운영 규정을 토대로 치밀한 기획 아래 문학상이 추진되었다.

제4회는 외부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요산문학상을 받았던 광주의 문병란 시인이 선정되었다.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내가 왜 이 상을 받는가, 낙동강이라는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라고 밝히, ‘낙동강문학상’은 강처럼 어울림과 포용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강서 지역은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인 만큼 행사 때면 주최 측 전체 회원들의 신명 나는 참여와 다양한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넉넉한 인심 덕분에 수상자나 축하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성대한 잔치가 열린다고 한다. 그리고 수상작품은 교육 및 문화 콘텐츠로도 활용된다니 작가의 낙동강 사랑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지역민들에게 낙동강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넓히려고 만든 ‘낙동강문학상’은 이제 다른 지역 문학

인들도 탐내는 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작가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은 곳에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작가는 문학상을 제정한 중심에서 있지만,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몸을 낮추는 그의 인품은 강물처럼 넉넉하다.

서태수 작가는 조용하면서도 강인하다. 낙동강을 사랑하는 문학 작가로 자타가 인정하는 인물이다. 낙동강 연작 시조 600여 편이 있다. 그의 삶에서 낙동강은 어머니의 젖줄처럼 작품의 근간이 된다. 남은 생애 동안 낙동강에 대한 작품만 써도 이야기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린 날 하루 종일 강가에서 놀았던 탓에 중이염을 앓기도 하여 지금도 일 년에 서너 번은 이비인후과에 다녀야 하는 후유증이 있지만, 훈장처럼 생각한다는 작가의 수필은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가 명주실을 자아내고 나비로 환생하는 이야기를 치환하여, 어머니가 후생에서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염원하는 작품으로 다가와 사람의 일생을 뒤돌아보게 만든다.

엄마와 장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몇 권은 더 될 거다” 생애의 거친 이랑에서 종종길을 멈추고 아픈 무릎 웅크린 채 누웠습니다. 하얀 명주실 친친 감은 누에고치들, 새로운 나비로의 환생을 꿈꾸는 번데기들이었습니다. 한 잠 두 잠 허물을 벗어 후생(後生)엔 고운 날개 어느 하늘 나실까. 때마침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흐르는 듯 맴도는 낙동강 물길을 활주로 삼아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 「누에고치」 일부

평범한 일상을 서사로 발전시켜 장면이나 사상을 전환하며 끝을 맺는 그의 글은 읽고 나면 마치 좋은 영화나 음악처럼 여운이 남는다. 향토색 짙은 수필집 『조선 낮에 버린 수필』에서 그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종족 본능을 풍자와 해학을 가미하여 독자의 심금을 울리고 흥미를 이끌어낸다.

부창부수(夫唱婦隨)의 삶을 이루며 아내와 자녀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해왔기 때문이다. 두 아들에게 “먼저 여자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니, 전통의 흐름은 현대로 이어져 아버지의 강으로 흐르고 있다.

아버지의 강江
- 물줄기

밀려서 흐르는 것이 강이라 여겼습니다
새로 솟은 밝은 물이 낡은 물을 한데 몰아
강둑을 팡팡팡 치며
밀고 간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손금 같은 가을 물길 잡히고
주름진 물이랑 붉은 잎맥 드러난 즈
앞에서 끌어당기는 물줄기를 보았습니다

보채며 굽이치는 철없는 골짜기를
온몸으로 달래면서 들판으로 데불고 와
도도히 이끄는 물길
아버지의 강을 보았습니다

- 「아버지의 강-물줄기」 전문,
『낙동강 연작시조 선집』에서



서태수 낙동강 연작시조 선집 『낙동강 푸른 물길』과 수필집 『조선밖에 버린 수필』(2017)

작가는 강서문화원에서 문학 강의를 오래 해왔다. 그리고 여러 문인단체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낙동강 옆 강서문인협회에 관심이 많다. 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경험을 살려서 작가의 문학 지식을 전달하려는 모습은 마치 고3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애쓰고 성의를 다하여 글쓰기 작법(수법)에 대한 특강은 시간이 유독 짧게 느껴진다. 작가의 재담에 매료되어 강의를 다시 요청하기도 한다.

지금은 머리카락이 희끗한 노령에서 젊은이들까지 수강생들의 연령층이 다양하다며 반드시 워드 작업에만 꼭 의존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카톡으로 단체방을 만들고 글을 쓰게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수강생들이 문학의 문턱을 잘 넘어 들어온다며 이야기 중간중간에, 책상에 얼굴을 묻고 웃기도 하는 문학 작가의 모습에 나이가 들어도 소년처럼 해맑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작가는 문학 하기를 참 잘했단다. 하루하루가 즐거운

것은 문학 덕분이란다. 부부는 함께 살면서 서로 닳는다는데 외형이 닳은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닳았다는 말이다. 작가의 아내 또한 수필가로 『삶에도 바람이 분다』를 발간했다. 문학뿐만 아니라 도예공방을 운영하고 다도 선생님이로 작가 못지않게 활동하면서도 조용히 남편을 내조하며, 작가를 방문하는 손님에게도 정성껏 만든 차를 대접한다. 오래전에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은 일이 있다. 부부 금실이 좋으면 잉꼬부부라고 하거나 비둘기처럼 다정하다고 말하게 된다. 은퇴 후 마련한 신호마을에 '청락헌(淸洛軒)'이라는 옥호를 지었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하여 따로 살면서 충청도의 산골에 별장처럼 조그만 '운경산원'을 지어 휴가 때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놀다가 각자의 거처로 돌아간다고 한다. 낙동강 가까이서 부창부수 낙동강을 노래하는 시조시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끝맺는다.

글 윤기선 수필가

세상 읽기

박미정

길이 아날 때 가지마라

한참 가다 알아차린

아닌 길이라면

지혜가 열린 것이니

묵묵히 가지 마라에 수공하라

다시 만들어 가는 길

조금 늦어도

뚜벅뚜벅

걸다 보면

세상의 이치가

내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작가노트 | 길은 삶의 일상이다.

어느 날 사유의 길에서 터득하는 세상 이치를 통해 화해와 긍정을 지향하게 된다.

글_박미정 시인, 부산영호남문인협회 회장

RE: VIEW

- 미술** '부산미술 80년-형성과 확장 그리고 정착'
부산미술을 이끈 화가들 _ 정혜주
- 영화** 아름다워라
이상일의 <국보> _ 김민우
- 미술** 아직, 의미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
'아직_be for the meaning' _ 홍지혜

‘부산미술 80년-형성과 확장 그리고 정착’ 부산미술을 이끈 화가들

글_정혜주 예술학박사

부산미술협회가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았다. 1945년 광복 직후 [부산미술가동맹]으로 출범한 이래, 협회는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격동기를 통과하며 부산미술의 형성과 전개를 이끌어왔다. 예술이 개인적 유희를 넘어 시대의 감각과 사유를 기록하는 문화적 장치라면, 이들이 축적해 온 다양한 활동과 창작의 흐름은 곧 부산 미술사의 주요 국면들을 구성하는 중요한 흔적이라 할 수 있다.

1946년 가을에 결성된 [부산미술가동맹]은 양달석이 준 비위원장을 맡았고 우신출 서태문 서성찬 김남배 김종식 김윤민 등이 참여했다. 다음 해 2월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모든 미술가가 가입하면서 [부산미술가협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후 1957년 8월 11일에 다시 [부산미술협회]로 수정해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초기 창립 멤버로 가담했던 이들은 현재의 부산미술을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 그들의 열정과 작품 세계를 향한 치열한 사유가 없었다면 오늘날 부산미술의 지형 역시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80년의 숨결! 부산미술을 조망하다展’은 부산미술협회 창립 이후 1970년대 이전까지 이어졌던 ‘3·1절 기념 미술전’의 형식을 되살린 전시로, 총 903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지역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특히 1946년부터 1959년까지 ‘3·1절 기념 미술전’에 참여했던 작고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부산미술의 초기 형성 과정을 조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부산미술 80년-형성과 확장 그

리고 정착’으로 진행된 별도의 공간에는 양달석 김남배 김종식 서성찬 우신출 송혜수 전혁림 강신석 임호 문신 한상돈 성백주 김원갑 추연근 진병덕 김윤민 나건파 조목하 염태진 오영재 이석우 김원 등 총 22명의 작품이 전시됐다.

양달석은 흔히 ‘부산 근대미술의 산파’로 불린다. 도쿄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서 수학한 그는 야수파적 색채 감각을 바탕으로 향토적이고 민속적인 소재를 결합함으로써 서양화의 토착화를 시도했다.

한국전쟁 이후 피란지 부산으로 모여든 전국의 화가들은 세잔, 고갱, 브라크, 피카소로 대표되는 모더니즘 미술은 물론 쉬르레알리즘과 아방가르드에 이르는 다양한 양식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미술평론가 이용길은 “잘난 체하는 곁팔기식 그림 솜씨에 제 곳(부산) 작가들은 넌더리를 느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부산의 작가들이 이미 일본 유학을 통해 서양 미술의 흐름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넋가」(1953)와 「가야산 계곡」(1960년대)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서정적인 색채로 풀어낸 그의 화풍을 잘 보여준다. 짧고 둥글게 반복되는 붓 터치와 화면 전반에 부드러운 리듬을 형성하고, ‘낭만적 곡선과 풍만한 인물 형상’은 따뜻하고 목가적인 정서를 강화한다. 양달석의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이러한 조형 언어는 현실의 고단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이를 평화롭고 친진한 형상으로 전환하려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1 김남배, 양, 캔버스 오일, 41×53cm, 1940년대
2 김종식, 장안사, 캔버스 오일, 42×53cm, 1982년

대부분의 미술 사료에서 김남배는 ‘양 할아버지’라는 별칭으로 언급된다. 그의 작품에서 양이라는 소재가 빠진 적이 없었다고 회고될 만큼, 양은 그의 회화를 상징하는 핵심 모티프였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 역시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네 마리의 양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양의 흰색 면이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칫 단조롭게 보일 수 있지만, 크기 변화와 각기 다른 자세를 통해 미묘한 리듬과 움직임이 포착된다. 겉보기에는 정적인 구성이지만, 그 안에는 목가적이고 평온한 분위기가 흐르며 이러한 정서가 김남배 회화를 지배한다.

김남배는 1954년부터 1958년까지 부산미술협회 제3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지역 미술계의 형성과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중식의 회화는 부산 서양 화단에서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의 화면에는 현실과 추상이 교차하는 불가사의한 풍경이 등장하며, 이러한 특징은 그를 흔히 ‘명상적 풍경의 작가’로 설명하게 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장안사」는 이러한 그의 회화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화면은 화염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붉은 색채가 지배하고 있으며 표현주의적 분위기가 동양적으로 압축되어 전개된다. 마치 혼과 낮이 깃든 듯, 강한 정신성이 응축되어 있으며 김종식 회화가 지닌 명상적이면서 거침없는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송혜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예술가적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일화들이 남아 있다. “외모로 보나 기묘한 행동으

로 보나 예술가로서의 기질이 남달랐다”는 평처럼, 그는 말 총머리와 콧수염 그리고 빨간 양말을 즐겨 신는 자유분방하고 독특한 차림으로 기억된다.

그의 작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소와 여인’이다. 작가는 “나에게 소는 민족적 한이자 한국적인 동물이며, 국토이자 조국이다. 내가 소피이기도 하다. 마음으로 본 소를 낙서하듯 그린 것이 나의 소이다. 여인은 곧 작가인 나 자신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 역시 그의 대표적 도상을 보여준다. 화면은 엷은 색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소를 둘러싼 여인의 형상이 춤추듯 움직이며 화면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좌우로 배치된 인물의 신체는 역삼각형 구도를 형성하며 화면의 중심에 자리한 소의 강인한 존재감을 강조한다. 자유분방한 드로잉과 즉흥적인 선의 흐름은 그의 회화가 지닌 정신적 태도를 드러내며 송혜수 특유의 조형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부산의 근대 화가들은 서구의 추상적 경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기보다 향토적 정서와 현실의 삶을 토대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다수의 작가는 구상 중심의 화풍을 유지하면서 야수파, 후기 인상주의, 표현주의 등의 조형 어법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자연 풍경과 서민들의 삶을 화면에 담아냈다. 이러한 시도는 서구 미술 양식을 지역적 감수성과 결합하려는 과정이었으며, 그 속에서 부산 미술은 고유한 정체성과 조형 언어를 형성하며 전개될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이후 부산 미술의 토대를 이루며 지역 미술사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아름다워라 이상일의 <국보>

글_김민우 영화평론가

일본의 미의식을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와비사비(侘び寂び)로 대표되는 불완전하거나 투박함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과잉된 표현과 순간의 강렬한 감정에 서 아름다움을 찾는 양가적인 미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일본으로 넘어가면 에로그로-난센스로 대표되는 일본 전통 미학에서 엄정하게 지키고자 했던 형식조차 파괴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처럼 일본은 선입견과는 다르게 역동적인 변화와 함께 양극단의 미의식이 공존하고 있는 독특한 나라다. 설령 일본인이라고 해서 일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각자의 환경에 따라 일본인들에게도 일본은 전혀 다른 미감을 가진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상일의 <국보>는 영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의미심장하다. 그는 일본에서 나고 자랐으며 여전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이름에서 보듯 여전히 한국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일교포 3세 출신이다. 그런 그가 일본의 전통 예술인 가부키를 소재로, 그것도 일본 실사영화 흥행 역대 1위를 만들어 내었다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국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린다. 영화 안팎의 이상일과 가부키는 서로를 수식하며 <국보>라는 영화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일교포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냈던 이전 세대 재일교포 영화감독들과는 다르게 이상일은 상업 영화 문법

을 충실히 따른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신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주목하게 만든다. <용서받지 못한 자>(2013)에서의 아이누처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민족에서부터 <악인>(2010), <유랑의 달>(2022)처럼 논란이 될 만한 소재를 과감히 드러내기도 한다. 각자 작품에서의 위치와 그 결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필연적인 운명에 놓인다. 자신으로선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근원적인 갈등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국보>의 주인공 타치바나 키쿠오(요시자와 료)와 오가키 쉰스케(요코하마 류세이)도 그렇다.

그전에 영화의 배경이 되는 가부키에 대해서 말해야겠다. 17세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전통 연극 가부키는 육체적 전승을 기반으로 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진다. 배역의 이름과 역할을 혈족 중심으로 이어받는 '습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다 보니 가문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고 대대로 혈족의 후계자가 물려받으면서 가부키 배우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종의 귀족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가부키의 운명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며,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약을 조금 하자면, 나는 여기서 감독 이상일의 존재가 겹쳐 보인다. 이방인으로 태어나 그 세계를 진입하고 싶지만, 그 진입구가 너무나 단단해서 특출난 재능이 있지 않으면 진입하기 어려운 그곳. 말 그대로 혈족 중심의 세계. <국보>의 이야기를

이끄는 문제나 갈등 역시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롯된다. 야쿠자 집안에서 태어난 키쿠오는 가부키에 천부적인 소질을 지니고, 절친한 친구이자 가부키 명문가 집안의 아들 슌스케와 온나카타(가부키에서의 여성 역할. 남성이 맡는다) 역할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가문의 후계자는 슌스케인데 재능은 키쿠오가 뛰어난 상황. 그것은 가문에게는 딜레마로, 둘 모두에게는 비극으로 이어진다.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아름다움'이다. 아니, <국보>에 등장하는 모든 감정은 이 아름다움에 수렴한다. 혈족이 아님에도 키쿠오가 가문의 후계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공연이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키쿠오가 정작 자신의 혈연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데 그들이 방해되었기 때문이다. 키쿠오와 슌스케가 마지막으로 화해하는 것도 무대 위다. 그뿐인가. 끔찍할 정도로 원망스러운 감정을 지니면서도 계속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가부키의 굴레도 심지어 야비할 정도의 협잡 행위 모두 이 아름다움이 가능하게 만든다.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정열은 마지막 시퀀스에 이르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듯 만개한다.

시간이 흘러 늙어버린 키쿠오. 그는 이제 '인간 국보'가 되었으나 아름다움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말을 딸 아야노(모리 유사쿠)를 통해 듣는다. 그럼에도 그를 인정하는 아야노. 그 뒤 이어지는 키쿠오의 '백로 이야기' 공연은 그동안 숨죽이며 피해 왔던 아름다움의 맨살,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며 만들어왔던 그 황홀한 경지를 선사한다. '백로 아가씨'의 마지막 대미. 인간과 사랑을 하고 싶었던 백로가 사랑에 실패하고 백로로 돌아와 차가운 눈발 위에서 죽는 장면과 키쿠오는 겹쳐진다. 흩날리는 눈발은 일본 미의식의 결정체, 무상無常함의 극치다. <국보>에서의 예술은 말 그대로의 무상함일까? 아니면 그 무상함에도 느껴지는 아름다움에 있을까? 여전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상일은 일본인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던 자신이 끊임없이 되물을 수 밖에 없는 일본 그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영화의 마지막. 키쿠오의 대사는 그래서 더욱 무거워진다. '아름다워라.'



아직, 의미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 '아직_be for the meaning'

글_홍지혜 전시기획자

동시대 미술에서 '비어 있음'은 더 이상 단순한 공백이나 결핍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 혹은 기존의 인식 체계가 작동하기 이전의 조건을 가리킨다. 기획전 '아직_be for the meaning'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이 전시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명확히 제시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한 채 지나왔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대상의 존재를 통해 의미를 확인하고 기록과 형식을 통해 그것을 고정하려는 익숙한 인식 구조 속에서 설명되지 않은 감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경험, 기록되지 않은 상태들은 종종 주변으로 밀려난다. 이 전시는 그러한 주변화된 영역을 다시 전면으로 호출하며 '없음'으로 간주되어 온 상태가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지를 탐색한다.

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부산 사상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일산수지의 공장 건물이다. 한때 생산과 노동의 질서가 조직되던 이 공간은 현재 기능이 멈춘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공간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녹슨 철 구조물과 기름얼룩이 남은 바닥, 비어 있는 설비의 자리들은 과거의 노동과 시간을 여전히 암시하며 현재의 정지된 상태와 겹쳐진다. 이 전시는 이러한 흔적을 제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장이라는 장소가 지닌 조건과 시간의 층위를 드러내며 기능이 멈춘 상태 자체를 하나의 미학적 조건으로 전환한다.

관람 동선은 건물 외부에서부터 시작된다. 1층 야외에 세워진 검게 칠해진 각목들은 공사장에서 버려진 재료로, 불안정한 균형 속에서 서 있는데 공간에 묘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검은색이 전면으로 등장하며 효율의 논리 속에서 사라진 의미들을 환기하며 1층 전시장 내부로 연결시킨다. 거대한 철문을 지나 내부로 들어서면 공장의 물리적 조건이 그대로 드러난다. 마모된 바닥과 녹슨 구조물, 남겨진 설비의 흔적들은 공간이 여전히 과거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한다. 작품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간을 채우기보다 공장의 빈자리와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배치된다. 그 결과 관람의 경험은 단순한 시각적 감상을 넘어 공간을 이동하는 신체적 경험으로 확장된다.

1층 내부로 들어가면 처음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것은 홍순환의 작업이다. 일상적인 사물들을 느슨하게 배치한 그의 작업은 작품과 비작품 사이의 경계를 흐리며 우리가 예술이라 부르는 기준 자체를 다시 질문하게 만든다. 이어 등장하는 김동찬의 붉은 캔버스는 강한 색채와 상징성을 통해 공간의 긴장감을 형성하며 입구에서 마주하는 시선의 충동을 만들어낸다. 윤창호의 작업은 자동차 이미지와 소비 문화의 기호들을 수집해 뒤틀린 이미지로 구성하며 럭셔리를 유희적으로 해체한다. 공업용 카트 안에 놓인 고깃덩이를 통해 홍지혜는 신체의 물질성과 공장의 장소성을 교차시키며 생산의 공간과 생명의 물질이 낮설게 마주



하는 장면을 제시한다. 공간의 다른 지점에서는 백두산 송
 화가루라는 자연 물질을 매개로 이항대립의 경계를 다층
 적으로 탐색하며 서로 다른 개념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창문과 타일이 남아 있는 공간에서는 러시아 출신 작가 빅
 토리아의 드로잉이 등장한다. 부산의 풍경과 인물이 자유
 롭게 배치된 작업은 작가가 한국에서 경험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감각의 이동을 반영한다. 2층 공간으로 이어지
 면 전시는 또 다른 리듬을 형성한다. 장보민의 선 드로잉
 은 반복적 축적을 통해 신체의 감각을 드러내며 공간으로
 확장시킨다. 심초의 작업은 이미 칠해져 있던 벽면과 회화
 를 결합해 공간 전체를 하나의 추상적 화면처럼 작동하게
 했으며, 지핑핑은 펠트 천을 활용한 입체적이면서도 감각
 적인 설치를 통해 전통적인 원근법을 해체하며 관람자의
 시선을 다층적으로 확장한다. 이어지는 공간에서 신새날
 의 작업은 유토피아 이미지를 디지털 프린트로 제시하며
 개인적 이상향의 공간을 환기한다. 유규영은 버려진 신문
 과 나뭇가지 같은 재료를 통해 남겨진 흔적과 사물의 사
 용에 대한 전이 과정을 보여주고, 리우양의 작업은 반복적
 으로 덧입혀진 색과 거친 붓질을 통해 신체의 흔적과 시간
 의 흐름을 화면 위에 남긴다. 마지막으로 손현정의 회화는
 붓질의 반복을 통해 감정의 층위를 물질적 흔적으로 나타
 내며 하나의 신체적 기록을 공간에 맞춘 설치로 드러낸다.

이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서로 다른 문화적 배
 경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특정 지역
 의 미술 담론을 넘어 서로 다른 감각들이 하나의 공간 안
 에서 교차하도록 만든다. 부산이라는 산업 도시 위에 국
 제적 감각이 합쳐지면서, 전시는 지역성과 동시대성을 드
 러내는 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일산수지는 동시대 미술
 이 스스로의 장을 다시 만들어가는 하나의 실천적 방식
 으로 읽힌다.

‘아직_be for the meaning’이 제시하는 것은 완결된
 의미가 아니다. 이 전시는 오히려 의미가 아직 형성되지 않
 은 상태, 혹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온 감각의 영
 역을 드러낸다. 생산과 효율의 논리가 지배하던 공장 공간
 이 기능을 멈춘 순간, 그곳에는 새로운 감각의 가능성이
 열린다. 작품들은 이 빈 상태를 채우기보다 오히려 그 공
 백을 더욱 강조하며 관람객의 인식을 다시 환기한다. 결국
 전시는 ‘있다’와 ‘없다’라는 이분법적 판단을 넘어 사이에
 머무는 상태를 사유의 영역으로 제안한다.



1951년 초, 용두산 자락(현 동광동)의 판잣집 모습(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8화 —

「봄날은 간다」와 부산 화제



1954년 유니버설레코드사에서 발매된 「봄날은 간다」 레코드

가요이면서도 가요 같지 않고,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분위기를 가리지 않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6.25 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걸 보면 깨나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 매력도 지녔다. 그것도 봄이 오면 누구나 한 번쯤 흥얼거리게 되는 친숙한 노래다. 「봄날은 간다」는 이렇게 항상 우리 곁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아련함을 주며 다가선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웃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 「봄날은 간다」 가사 1절

이 가요는 손로원 작사, 박시춘 작곡으로 1954년 대구에 있는 유니버설레코드사에서 발매되었다. 노래는 전영록의 어머니 백설희가 불렀다. 손로원의 시적인 노랫말과 박시춘의 서정적인 멜로디, 여기에 백설희의 애절한 목소리가 가미되어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백설희는 이 노래로 일약 최고의 가수가 되었다. 이후로 50명이 넘는 가수가 트로트·포크·록·창·재즈 등 다양한 리듬과 자기만의 색깔로 리메이크하면서 색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2009년 시 전문 계간지 《시인세계》에서 현역 시인 100명이 뽑은, 가장 노랫말이 아름다운 가요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심지어 서정시인 문인수는 한술 더 떠 4절을 지어 헌사하기도 했다. 그분이 아니다. 다섯 글자로 된 제목 하나를 가지고도 영화·소설·시·드라마·뮤지컬·연극·미술·악극 등에 차용되면서 다양한 장르에 걸쳐 한국인의 정서가 담기는 상징적 언어가 되었다. 대체 이 가요의 노랫말에는 어떤 매력이 숨어 있기에 이렇게 남녀노소 관계 없이 국민적 사랑을 받는 것일까?

먼저 《시인세계》에서 시인들이 이 가요를 선정한 이유로 “그림을 보는 듯한 회화적 이미지(시각·청각 이미지)와 리듬감을 느끼게 하는 노랫말은 한 편의 ‘애송시 수준이다’”라고 했다. 작사가 이주엽은 그의 『이 한 줄의 가사』라는 가사 비평집에서 “이 한 곡 안에는 봄과 인생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가사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 수많은 풍경이 겹쳐 있다”면서 “이 노래 이후 한국인에게 봄은 이전과 다른 풍경이 됐다”고 하였고, 한기봉 전 언론중재위원은 “가는 봄을 노래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며 인생의 덧없음과 사랑의 유한함과 추억의 쓸쓸함을 조우한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는 순간, 봄은 다른 ‘풍경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가요칼럼니스트 유차영은 “시대와 개개인을 뛰어넘고 아우르는 가사와 강약고저가 분명한 멜로디가 이 노래의 힘이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언론인이자 가수인 왕성상은 “6.25전쟁이 한창일 무렵 막 결혼한 젊은 여인이 군에 간 신랑을 그리워하며 부른 애

상곡(哀傷曲)이자 사부곡(思夫曲) 같기도 하며, 정서는 토속적·향토적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봄날은 간다」는 봄날의 찬란함과 인간의 허무한 심정을 대비시키면서 한국적 정서를 잘 드러낸 절창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불후의 노랫말을 남긴 작사가 손로원은 과연 어떤 사람이며, 이 노랫말과 관련하여 어떤 비화가 숨어 있는 걸까.

한국 가요사에서 반야월과 손로원은 작사가의 양대 산맥으로 통한다. 반야월이 4,500여 곡, 손로원이 3,000여 곡을 남겼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 만큼 그의 필명 또한 여럿이다. 손로현(孫鸞顯), 손희몽(孫懷夢), 불방각(佛訪覺), 손영감(孫靈鑑), 나경숙(羅鏡淑), 부부린(夫婦麟), 남북평(南北平) 등이 있으며, 대체로 손로원(孫露源)을 많이 사용했다. 이에 비해 방랑벽이 심한 기인다운 기질 때문인지, 그와 가까웠던 지인들은 그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일컬을 뿐, 그에 대한 뚜렷한 이력은 전하지 않는다. 그나마 필명만큼이나 그의 출생지나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게 전해진다. 특히 일제강점기엔 단 한 줄의 가사도 쓰지 않았던 그가 해방을 맞아서서는 부산항 부두를 직접 찾아 「귀국선」의 현장감 있는 노랫말을 쓰면서 부산에서의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로 「봄날은 간다」처럼 주옥같은 노랫말을 다수 탄생시킨 점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손로원은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되는 1911년 6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나 강원도 철원에서 자랐다고 한다. 일설에는 독학으로 문학을 공부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병역을 피하느라 전국을 유랑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작사가 정두수(1937~2016)는 한 신문 칼럼에서 이렇게 소개한다.¹⁾ “연희전문 문과를 나온 부잣집 아들로 일제강점기에 전국을 방랑하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다”라고 하면서, 1945년 화사한 봄날 어머니의 무덤 앞에 상복을 입은 손로원은 무릎을 꿇고 지난날을 사죄하며 통한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저것이 마음 붙일 데가 없어 낭인처럼 싸돌아다니는 거지. 지도 강가를 들고 자식을 낳게 되면 고향에 와 눌러앉게 되겠지”하면서 “노원이 장가드는 날 나도 연분홍 저고리와 치마를 장롱에서



1 '노랫말로 역사를 말하는' 작사가 손로원
2 2019년 현대한국인물(가수)로 선정된 백설희 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

꺼내 입을 거야. 내가 열아홉 살 때 시집오면서 입었던 그 연분홍 저고리와 치마를” 그 전날 아들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 하던 말이 유언처럼 다가왔기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던 것이다. 최근 E&M의 음악 전문 채널 엠넷에는 더 자세한 자료가 있어 눈길을 끈다. “손로원은 경주 손 씨로서 6년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1932년 그의 나이 21살 때 서양화가, 2년 후인 1934년엔 시인으로 데뷔하였으며, 그로부터 10여년 가까이 흐른 1943년에 대중음악 작사가로도 데뷔했다”고 적혀 있다. 손로원은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6.25전쟁 이후인 1958년엔 영화평론가로도 활동한 걸 보면, 화가·시인·작사가·영화평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천재성을 지닌 예인으로 보인다.

「봄날은 간다」의 노랫말이 잉태된 시기는 1953년 연말 이후쯤이다. 그 무렵 부산은 사흘이 멀다 하고 크고 작은 화마에 휩싸여 ‘부산’을 ‘불산’이라 부를 정도였다. 피란민들은 부산 곳곳에 무허가 판잣집을 뿔뿔하게 지어놓고 엄동설한의 혹독한 추위와 싸움을 벌였다. 그때 판잣집은 종이상자나 판자, 거적蓆기 아니면 루핑²⁾과 같은 가연성 소재로 지었다. 특히 지붕을 덮은 루핑에 불이 붙으면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마치 불새와 같이 주변을 날아다니며 한순간에 일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부산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난 시기는 피란수도 막바지였던 1950년 초반 겨울철이었다. 먼저 1952년 11월 국제시장

에 대형 화재가 발발했고, 이어서 1953년 1월 구정을 앞두고 국제시장에서 다시 큰 화재가 발생해 1,600여 동의 점포가 불탔다. 이러한 화마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해 11월 27일에는 부산역전 대화재로 오늘날 중구 일대의 건물과 주거지가 전소되어 사상자 29명, 주택 3천여 채가 소실되고, 이재민 3만여 명이 발생했다. 그다음 해 12월에도 두 차례나 큰 화재가 닥쳤다. 먼저 10일 동광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판잣집 1,000여 동의 불탔고, 보름 후인 26일 용두산 화재로 부산국악원 창고에 보관 중이던 국보급 문화재 3,500여 점이 소실되는 비운을 겪었다.

이 무렵 용두산 기슭에서 신세 지고 있던 손로원 선생은 1953년 부산역전 대화재 시에 그의 판잣집 단칸방이 한순간에 불타는 불운을 겪고 말았다. 그때 젊은 날 연분홍 치마저고리를 입고 찍은 어머니의 사진을 비롯하여 애지중지하던 물품 몇 점이 화마로 사라졌다. 자신을 키워준 홀어머니 곁을 떠나 방랑 생활에 익숙했던 그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도 임종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늘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쌓여 있었고 뒤늦게나마 어머니 사진을 단칸방 벽에 걸어두고서 애써 누우치며 살았다. 이러한 어머니 사진이 불시에 일어난 화재로 순식간에 사라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겠는가. 이 가요의 첫 구절에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어머니에 대해 그립고도 아픈 추억의 발로로서 슬프고도 허탈한 심정을 서정적이고 한이 서린 노랫말로 그려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사라진 것에는 프랑스 Remy Martin 사에서 제조한 고급 양주 ‘루이13세’도 있었다. 이 양주는 영도 태종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우연히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프랑스 장교가 손로원의 그림 솜씨를 보고 자신의 어머니 초상화를 그려 달라고 부탁하여 그 대가로 받은 선물이었다. 이후로 이 양주는 동료들에게 자랑거리 제1호가 되었고, 결국엔 야끼다가 x이 된 처지가 되었다. 훗날 애주가 손로원 선생은 이 고급 양주를 지인들과 함께 나눠 마시지 못한 것을 몹시



후회하며 애통해했다고 한다. 더구나 1950~60년대는 저작권료가 없던 시절이라 그의 왕성한 작품 활동에 비해 주머니 사정은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가수 김용만(1933~2024)은 부산에 극장쇼를 하러 와서 만날 때마다 탁주값이라며 얼마의 돈을 포켓 속에 슬쩍 집어넣어 드렸다고 했다. 사시사철 김정 고무신에 김정 점퍼는 그의 캐릭터였고, 항상 술을 가까이해 입가에 술 냄새가 풍기는 '막걸리 대장'으로 통했다.

불타버린 것에는 벽에 걸어둔 세계지도도 있었다. 당시는 전후 사회 분위기를 쇄신을 위해 이국적인 노랫말이 경쾌한 리듬에 실려 인기리에 불렸다. 1952년 현인의 「인도의 향불」, 1953년 장세정(백설희의 리바이벌에서 인기)의 「샌프란시스코」와 허민의 「페르시아 왕자」, 1954년 금사향의 「홍콩 아가씨」와 백설희의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등이 그의 작품이다. 어려운 시기, 언제 그가 인도나 중동의 페르시아(현재 이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홍콩 등지로 여행하였겠는가. 그는 세계지도를 들여다보면서 가끔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며 외국을 동경하는 이국적인 노랫말을 엮는 연금술사가 되었다.

손로원이 지은 대표적인 노랫말들은 우리 역사의 격변기를 대변한다. 해방의 기쁨인 이인권의 「귀국선」, 피란민의 아픔을 그린 「경상도 아가씨」와 「꿈에 본 내 고향」, 전후 국민의 지친 마음을 달래 준 「물방아 도는 내력」, 전쟁의 후유

증을 대변한 「에레나가 된 순이」 그리고 전후 정치 혼란성의 가요로 비치기도 한 「비 내리는 호남선」은 우리 민족의 애환을 시대적 정서와 함께 서정성 깊은 노랫말로 남겼다. 노랫말로 역사를 쓴 훌륭한 작사가였지만, 아직 이분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손로원의 방랑 생활 마지막은 비참했다. 1973년 12월 11일 부산에서 교통사고로, 62세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부산과의 적절한 인연을 이어온 그였지만, 유감스럽게도 부산에는 그의 흔적이 없다. 그나마 「봄날은 간다」 악보가 새겨진 노래비도 그의 고향도 아니고 노래와도 특별한 관계가 없는 춘천 남이섬 노래박물관 뜰에 세워졌다. 지난 2013년 10월 28일 '박시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봄날은 간다」를 대표곡으로 선정하여 세운 '박시춘 노래비' 덕분이다.

이 땅 어디에서든 사계절 따라 봄은 찾아오고, 덧없이 봄날은 간다. 그러나 가요 「봄날은 간다」는 관심이 있는 곳에 먼저 새싹을 피우며 봄을 기리는 것 같다.

글 이용득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장

1 정두수, 「가요 100년 그 노래 그 사연」, 《동아일보》, 1991. 8. 30.

2 아스팔트 롤 루핑 Asphalt Roll Roofing을 말하며, 두꺼운 판지나 섬유에 아스팔트(콜타르)를 칠하면 방수가 뛰어나 주로 지붕 소재에 사용되었다.

애민愛民과 애국愛國의 결단, 역사를 바꾼 ‘위대한 리더십’ 2제

- 조선 세종의 한글 창제, 미국 수어드 국무장관의 알래스카 매입의 결단 -

#1.

기득권·사대주의 장벽 허물고 오늘날 ‘K-Culture’의 원조로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없이 여겨 새로 스물 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 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 易習便於日用耳)

위의 글은 조선^{朝鮮}의 4대 왕 세종^{世宗}의 백성 사랑^{愛民} ‘결정판’이자 ‘위대한 창작물’인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서문^{序文}입니다.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한글을 말하며, 세종이 직접 서문을 지었습니다. 세종은 재위 25년째인 1443년 음력 12월 당대의 석학들인 집현전^{集賢殿} 학사들과 28자^字 한글을 창제한 뒤 이를 가다듬어 3년 후인 1446년 음력 9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頒布}했습니다. 어려운 한자^{漢字} 대신 만백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소리글자 ‘한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혁신의 아이콘’이 세상에 출현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과 우여곡절이 따랐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명군^{明君}이자 성군^{聖君}인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에 얽힌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1444년, 집현전의 실질적인 수장이자 대표적인 보수파 유학자인 부제학^{副提學} 최만리^{崔萬理}를 필두로 한 7인의 학자들은 “중화^{中華}를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려 한다”라는 상소로 한글 창제에 몰두하는 왕의 결단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들이 올린 상소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선은 대대로 중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고 우겼습니다. 또 한자는 유교 경전의 핵심으로 배우기 쉬운 언문^{言文}(한글)이 보급되면 선비들이 어려운 한자를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성리학의 깊은 이치를 깨닫는 학문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한자의 음과 훈을 빌린 ‘이두^{吏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두의 근본은 한자이므로 괜찮지만, 아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근본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종이 “까막눈인 백성이 법을 몰라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데 대해, 최만리 등은 “글을 안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며, 공정한 판결은 관리의 자질에 달린 것”이라며 언문의 유용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면서 유학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그치지 않은 점, 세자와 대군들을 참여시켜 서두른 것은 군주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꼬집은 뒤, 천한 글자를 사용하게 되면 사

대부의 기풍이 사라지고 풍속이 어지러워진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대(事大) 지식인들에게 한자는 기득권의 '철옹성(鐵籠城)'을 지키는 자물쇠였습니다. 그런데 배우기 쉬운 새 글자가 세상에 나온다? 이진 그들의 '지적(知的) 독점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현전 학자,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도 세종을 압박하는 일에 가세했습니다. 세종이 “백성들에게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언문으로 번역한 뒤 이를 가르치면 효자·열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자, 정창손은 “삼강행실도를 반포한 이후에도 충신, 효자, 열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음이 사람의 자질(資質)에 달린 것이지, 어찌 글을 몰라서 이겠습니까?”라는 논리로 백성의 교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냉소주의를 보였습니다. 세종은 이에 “이것이 어찌 선비의 이치(理致)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속(庸俗)한 선비로다!”라고 꾸짖은 뒤 정창손을 파직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는 쉬운 글자 보급이 꼭 필요하다는 세종,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한자를 포함해 '중국 것'이면 무조건 옳고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일부 관료 계층(사대부(士大夫) 간의 '건곤일척 대결'이 펼쳐진 겁니다. 세종은 그러나 '한자'를 신주 모시듯 하는 반대파 주장들을 불호령과 함께 의금부에 가두는 등 초강수로 맞서면서 훈민정음의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또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한자 때문에 지식으로부터 소외된 백성들에게 '언어의 주권(主權)'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기로 기득권의 '견고한 성곽'을 무너뜨렸습니다. 삼강행실도는 세종의 명에 따라 1434년 편찬된 '유교 윤리서'입니다. 책에는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 등 인간관계의 기본 위계인 '삼강(三綱)'의 실제 행실들이 한자와 그림으로 표

현되어 있습니다.

삼강(三綱)의 '강(綱)'은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놓은 굵을 줄을 말합니다. 이 그물의 코를 잘 다루면 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듯이, '강'은 세상의 질서를 잡아주는 중심축이자 근본 원칙인 거죠. 이처럼 세종이 삼강행실도를 펴낸 것은 늘 무식한 백성들 편에 서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종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을 넘어,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에 가까운 인본적인 철학의 집대성이었다고 후세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반대를 물리치고 한글 창제와 반포를 이끈 세종의 애민 정신은 시대를 관통하여 오늘날 우리 삶의 가장 넓고 깊은 곳에서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미래를 내다본 지도자의 고독한 결정은 결국 역사의 승리로 남는 법!

그렇다면 세종의 한글 창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선 훈민정음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중국의 한자가 우리말을 온전히 담지 못함을 인식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려 했던 '자주(自主) 정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한자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지식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 편에 선, “누구나 쉽게 배워 편하게 쓰게 하겠다”라는 통치자의 '애민(愛民) 정신'도 녹아 있고요. 아울러 글자는 배우기 쉽고 편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구축한 '실용(實用) 정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종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의 독점을 깨고 지식을 대중화해 백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민주주의 씨앗'을 뿌렸다는 점입니다. 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과 천·지·인(天·地·人)을 담은 모음 체계를 채택함으로써, 현대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세계

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문자라고 극찬합니다. ‘한국 문화K-Culture’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에는 한글이 근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종의 자주정신-애민정신-실용정신은 한글이라는 세계사적인 새 문자를 탄생시켰고, 오늘날 이 ‘K-Culture’의 등에 올라탄 한국인의 위상이 세계 속에 우뚝 서도록 만든 거죠. 한글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이 천년만년 자랑스럽고 ‘똑똑한 나라’, ‘똑똑한 종자種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니, 세종의 위대성이 머리 숙여집니다.

#2.

오늘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준 미국 수어드 국무장관의 ‘혜안’



윌리엄 수어드
William Henry Seward
(1801~1872)

“알래스카 매입은 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었지만, 미국 국민이 그 가치를 깨닫기까지는 한 세대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chase of Alaska was my greatest achievement, but it will tak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 generation before they realize it.*”

미국 수어드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쏟아진 온갖 맹비난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알래스카 매입을 이끈 뒤 남긴 말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당장의 비판에 연연하지 않는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하고 결정했다”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결정들은 대개 당대에는 ‘미친 짓’ 혹은 ‘꼴볼건’으로 취급받곤 합니다.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이를 지탱하는 데 ‘보물창고’가 된 알래스카. 위대한 지도자(리더)의 혜안과 결단은 세

월이 지나고 나서야,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반짝임을 알래스카 매입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선조를 둔 후손들은 두고두고 그 덕을 보면서 어깨를 으쓱입니다.

1867년 미국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드(William Henry Seward, 1801~1872)가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 매입 조약을 체결했을 때, 미국 내 여론은 비난과 조롱 일색이었습니다. ‘수어드의 바보짓(Seward’s Folly)’이라고 힐난했지만, 수어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론들은 ‘수어드의 얼음 상자(Seward’s Icebox), ‘앤드루 존슨의 곰 정원(Andrew Johnson’s Polar Bear Garden)’ 등으로 비꼬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정 책임자였던 앤드루 존슨(Andrew Johnson) 대통령은 남북 전쟁 이후 국가 재건 정책을 두고 의회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반대파 의원들과 언론들은 존슨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었는데, 알래스카 매입 역시 첨예한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알래스카가 미국인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자리 잡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880~1902년 주노(Juneau)와 노름(Nome), 페어뱅크스(Fairbanks) 등에서 대규모 금광이 잇따라 발견되었고, 1950~60년대에는 케나이(Kenai) 반도의 스완슨(Swanson) 강과 프루드 베이(Prudhoe Bay) 등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유전도 발견되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알래스카 북극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NWR) 등 미 개발 지역에 최대 150억~160억 배럴의 원유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야말로 ‘미래 가치’를 내다본 수어드의 결단이 ‘잭팟’을 터뜨렸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러시아(알렉산드르 2세)는 왜 이런 엄청난 가치를 지

닌 거대한 땅 알래스카(172만 33,337km², 남한의 17.2배)를 헐값(에이커당 0.02 달러)으로 미국에 팔아야 했을까요? 당시 러시아는 1853~1856년 영국, 프랑스 등과 벌인 크림전쟁에서 참패한 뒤 국고가 바닥나면서 외채를 갚기 위해선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또 알래스카는 러시아 본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행정·군사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관리 비용을 대야 했죠. 특히 당시 러시아의 가장 큰 적수이자 캐나다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군력을 동원, 알래스카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커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러시아는 어쩌면 그냥 빼앗길 수도 있는 알래스카를 영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미국에 헐값으로 넘기더라도 ‘완충 지대’로 만들면 ‘영국 견제’가 가능해지므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는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긴 뒤 “골칫덩이를 비싼 값에 잘 처분했다”라며 자축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분 이후 곧바로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고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등 알래스카는 알짜배기 ‘자원의 보고寶庫’였던 것이죠. 오늘날 미국과 자유 진영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매입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동산 투자’로 보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은 ‘최악의 부동산 처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알래스카는 자원적인 측면보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어드의 결단이 없었다면 냉전기 시절 미국은 소련의 엄청난 양의 핵미사일을 ‘머리’에 인 채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미국이 휘둘리면 미국이 축인 자유 진영 국가들도 ‘불안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겠죠? 따라서 수어드 장관의 결단에서 우리는 몇 가지 배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얼음덩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눈앞의 현상’이 아니

라 대륙 진출과 해양 진출이라는 거대한 전략적 가치를 알아보는 혜안입니다. 수어드는 알래스카가 북태평양의 패권을 쥐기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임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미 대륙에 남아 있던 유일한 유럽 세력인 러시아를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미국의 안보적 위협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죠. 미국은 또 알래스카를 확보함으로써 아시아와 북극권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에 엄청난 부를 안겨주었고, 풍부한 어장과 울창한 삼림 자원도 오늘날 미국의 중요한 ‘산업 자산’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어드 혜안의 실체는 당장의 ‘현금 가치’보다 미래의 ‘전략적 가치’에 투자한 용기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은 애민 정신으로 뚝뚝 뭉친 세종 덕분에 한글을 국어로 쓰는 호사를, 미국인은 숭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애국정신 하나로 알래스카를 매입한 수어드 장관 덕분에 엄청난 자원적 가치와 전략적 가치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공직자에게 세종의, 수어드 장관의 투철한 ‘애족-애국정신’을 배우고 연구하라고 필자는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통찰력을 지닌 ‘뚝뚝한 선조’의 혜안과 투쟁의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말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글로 숨 쉬고 자유 진영의 안보 속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득권의 거센 파도와 당대의 조롱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축복이다. 이제 우리 시대의 리더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때다.”

글_심수화 언론인/저널리스트

부산예총 총렬사 참배

3. 4.(수) 총렬사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부산예총) 회장단이 3월 4일 총렬사를 찾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을 비롯해 김인숙 수석 부회장, 권성은 부회장(음악협회 회장), 조성범 감사, 강명옥 국악협회 회장, 박혜숙 문인협회 회장, 강종관 사진작가협회 회장, 김경중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총렬사 본전과 의열각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충절 정신을 되새겼다.

부산예총 회장단은 이날 참배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예술문화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혁신과 도약을 바탕으로 예술문화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예총 자문위원단 출범

3. 13.(금) 오후 4시 한울집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는 지난달 13일 한울집에서 부산예총 발전을 위한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위원장 강종관(부산사진작가협회)을 비롯해 이채근(부산건축가회), 김영호(부산문인협회), 김응기(부산미술협회), 이승호(부산음악협회) 등 총 5명이다. 각 장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향후 부산예총의 주요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열린 제1차 자문위원회에서는 영화인협회 재가입 건과 생활예술인협회 신규 가입과 관련한 특별회원 정관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이 이루어졌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026년도 기획 행사를 비롯해 예술인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며, 부산예총은 이를 통해 지역 예술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건축가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2. 26.(목) 오후 4시 아바니센트럴부산



부산건축가회(회장 김두진)는 2월 26일 오후 4시 아바니센트럴부산 5층 아바니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승인 ▲기타 주요 안건 등이 상정됐고, 부산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가 사회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부산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인과 관계자에게 시상하는 제19회 부산건축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올해의 건축상에 조서영 건축가, 신인 건축가상에 조호제 건축가가 각각 선정됐으며, 공로상은 (전)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장 하성태, (주)백송홀딩스 회장 박정삼이 수상했다. 또한 부산건축가회 활동과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는 (주)제이디에스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박관수, (주)에이치제이중공업 건축사업본부 상무 김주원에게 수여됐다. 부산건축가회는 회원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오는 10월에는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정합니다〉

예술부산 2026년 3월호(vol.249) 표지 유성철 작가의 프로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및 경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 부산미술협회 정보위원장, 회원관리위원장 역임
- 부산미술대전, 광주미술대전, 부산미술협회 오늘의 작가상
송해수미술상, 청소년예술제 등 심사위원 역임
- 단체전 기획전 초대전 다수 참여

잘못된 정보로 독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정확한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간 『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700,000 (원)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700,000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500,000
· 표3 (뒷표지 안쪽) <i>마감!</i>	500,000
· 표4 (뒷표지) <i>마감!</i>	1,000,000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게재시, 또는 예총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연극
〈칼로막베스〉

4. 4.(토) ~ 5.(일) 오후 3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원작으로 권력과 생존을 위해 검을 든 인간의 욕망과 폭력성을 한국적 감성과 강렬한 신체적 리듬을 접목해 재해석했다. 무대에는 유머와 슬랩스틱, 비극과 광기가 혼재되어 배우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치열한 칼싸움이 강렬한 긴장감을 만든다. 맥베스는 맹인술사의 예언을 계기로 권력을 향한 욕망에 휩싸여 보스를 살해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속되는 폭력과 살인으로 결국 광기와 죄책감에 빠져 몰락하고 만다. 〈칼로막베스〉는 동아연극상 작품상과 연출상, 팸스초이스 PAMSChoice, 중국 비세토 연극제, 벨라루스 연극제 등 세계 유수의 연극제에 초청되어 국내외 평단의 호평을 받아온 작품이다. **문의 051)607-6000**



2026 Photo Club
빛따라 길따라 다섯 번째 사진전
겨울 프리즘

4. 1.(수) ~ 9.(목)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

우리는 흔히 겨울을 떠올리면 무채색의 풍경과 차가운 정적을 떠올린다. 그러나 가장 순수해 보이는 백색광 속에도 다양한 색이 숨어있듯, 겨울이라는 계절 역시 다채로운 빛과 온도를 머금고 있다. '겨울 프리즘'은 20명의 작가가 참여해 단일한 이미지로 규정할 수 없는 겨울의 다양한 얼굴을 독특한 시선으로 포착한다. 렌즈를 통해 담긴 장면들은 하나의 프리즘처럼 여러 빛깔로 분산되며, 사진 속 겨울이 차가움과 따뜻함, 고독과 희망이 공존하는 풍경으로 펼쳐진다. '천 개의 빛깔'로 겨울의 서사를 그려내는 작품을 감상하며 '나만의 겨울'은 어떤 색과 온도일까를 떠올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문의 051)3668-122



살롱 드 국악 I
- 첼로가야금

4. 10.(금)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오스트리아 출신 첼리스트 김 솔 다니 옐과 한국의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이 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한 듀오가 선사하는 특별한 무대이다. 가야금의 섬세한 울림과 첼로의 깊은 음색이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잇는 독창적인 사운드를 들려준다. 첼로가야금은 수림 뉴웨이브 〈수림문화상〉 수상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았으며 스위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가야금과 첼로의 이색적인 만남을 통해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울림의 음악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문의 051)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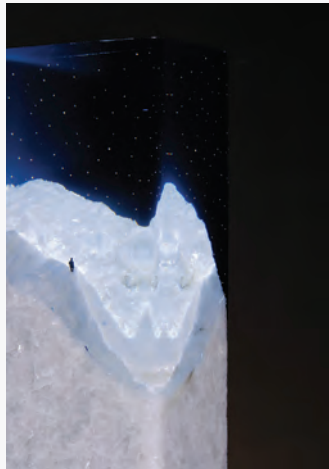


**2026 NAC 렉처콘서트
명견만리 1
낙동에서 북극항로까지**

**4. 11.(토) 오후 5시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낙동아트센터에서는 명사를 초청해 음악과 함께 인문학적 사유를 나누는 'NAC 렉처콘서트' 시리즈를 선보인다. 4월 강연은 '낙동에서 북극항로까지'를 주제로, 북극항로 연구의 권위자인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이번 강연은 '명견만리' 첫 번째 무대오 오충근 예술감독과 함께 낙동강에서 북해에 이르는 장대한 서사를 음악으로 풀어낸다. 공연은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비발디 「사계 중 봄」, 하순봉의 「낙동 오디세이」,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로 이어진다. 이번 렉처콘서트는 강과 바다 그리고 인류의 여정을 함께 사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 051)970-2771



**팀 리 Tim Lee 개인전
Toward the Light**

**3. 6.(금) ~ 4. 11.(토)
리앤배 갤러리**

작가는 돌과 빛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결합해 단단한 석재 속에 빛의 충위를 구현하며 물질과 비물질, 현실과 희망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생명체가 빛을 향해 움직이는 현상인 '주광성(Phototaxis)'에서 착안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각자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존재를 조명한다. 작품은 대만산 대리석과 예폭시 공정으로 제작되어 차가운 돌과 은은한 빛의 대비를 통해 고요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공간을 창조한다. 관람객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사물의 물성을 넘어 존재의 방향성과 내면의 의지를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51)756-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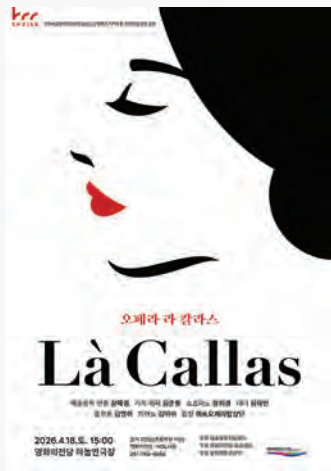


**연극
〈우리 죽어 깨어날 때〉**

**4. 9.(목) ~ 12.(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명성을 얻은 뒤 창작의 의미를 잃어버린 조각가 뤼베크가 과거 자신의 뮤즈였던 이레네와 재회하며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작품은 예술과 인간, 창작과 희생의 관계를 되짚으며 잃어버린 삶과 감각을 되찾고자 하는 두 인물의 여정을 따라간다. 노르웨이의 황량한 자연을 배경으로 인물들은 각자의 욕망과 선택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고 끝내 삶과 죽음 그리고 '진정한 부활'의 의미와 마주하게 된다. 인간의 본질과 예술의 윤리를 묻는 작품으로 깊은 사유와 여운을 남기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10-2871-5061



오페라
〈라 칼라스 La Callas〉

4. 18.(토) 오후 3시
영화의전당 하늘극장

전설적인 디바 마리아 칼라스의 삶과 음악의 바탕으로 한 예술가의 내면을 무대 위에 펼쳐내는 모노드라마이다. 대표적인 오페라 아리아와 배우 정희경의 연기를 통해 전통 클래식과 연극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오는 숨겨진 고독과 갈망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현실과 무대, 인물과 역할이 교차하는 깊이 있는 서사를 만들어 낸다. 오페라의 명장면들이 드라마처럼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관객은 한 예술가의 삶과 감정, 그 심연을 자연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다.

문의 051)780-6060



주은 개인전
Greetings from before
the Jordan, Jun

3. 5.(목) ~ 4. 18.(토)
제이무브먼트 아트스페이스 & 갤러리

‘요단강’이라는 단어에 담긴 경계의 의미를 통해 삶과 죽음,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별의 감정과 시간을 깊이 탐구한다. 작가는 투병과 사별로 인해 변화하는 인간관계와 시간의 인식을 개인의 기억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본다.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텍스트와 음성 매체로 재구성해 병치하며 서로 다른 경험과 감정의 층위를 보여준다. 작별 이후에도 지속되는 마음의 잔해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조건을 시각적으로 환기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2026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문의 051)622-9151



점과 시간 사이의
무한한 층위

3. 14.(토) ~ 4. 26.(일)
도모현 소소풍라운지

평면이라는 한계를 넘어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한 화면에 담아내려는 예술적 시도를 조명한다. 르네상스의 원근법부터 입체주의와 미래주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미술사의 흐름 위에서 출발한 전시로 관람객은 전시를 ‘보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김미래, 무나씨, 박영환, 조정현의 회화를 중심으로 3차원의 공간성과 4차원의 시간성을 화면 안에 응축하며 서로 다른 층위의 서사를 겹쳐 다차원의 시공간을 만든다. 회화, 사진, 영상, 홀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평면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며 관객에게 더 나아가 감각 경험을 제공한다. 단일한 시점에서 벗어나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식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새롭게 사유하는 자리이다. 문의 051)888-8708



**정철교 개인전
녹색 불꽃展**

4. 3.(금) ~ 5. 2.(토)
LEO&GALLERY 레오앤갤러리

정철교는 자연의 녹색 풍경 속에 잠재된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긴장을 탐구한다. 녹색은 생명의 성장과 식물의 번식, 자연의 순환을 상징하는 자연색을 넘어 인간이 통제하려는 거대한 에너지에 대한 경고색으로도 기능한다. 이번 작품들은 이러한 상반된 의미를 화면 위에 겹쳐 놓으며 자연과 기술 문명이 충돌하는 현대적 풍경을 회화적 에너지로 표현한다. 작가는 꾸준한 회화 작업과 함께 지역 미술사 연구, 작가 아카이브 프로젝트, 원로 작가 다큐레이팅에도 참여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자연과 기술의 충돌이라는 현대적인 주제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1)941-7004



**김남호 사진 개인전
실재의 이면에서
The Other Side of Reality**

4. 15.(수) ~ 5. 2.(토)
부산갤러리

김남호는 어린 시절 목격한 죽음의 기억을 사진 작업으로 치유하며 현실의 이면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탐구해 왔다. Pigment Print 형식으로 제작된 작품들은 실재와 현상을 동시에 바라보는 시선을 제시해 국제 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작가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의 방식으로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현실 너머의 세계를 이미지로 드러낸다. '한 눈으로는 실재를 탐구하고, 다른 눈으로는 현상을 탐미한다'라는 작가의 사진철학을 4월 18일 아티스트 토크에서 직접 전해 들 수 있다.

문의 051)715-1839



코뿔소와 유니콘

3. 21.(토) ~ 7. 19.(일)
부산현대미술관

시각예술 작가들이 옛이야기의 전통적 서사를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이다. 관람객은 글 없는 그림책 형식의 작품을 통해 이미지를 따라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관람을 경험하게 되고 이미지와 서사의 새로운 관계를 탐색하게 된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옛이야기의 결말과 달리 우리는 그 이후의 시간을 살아간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출몰한 7명의 작가가 각기 다른 형식과 시선을 통해 이야기를 폭넓게 풀어내고 단일한 결론보다 다층적인 해석의 흐름을 만든다. '이야기 실험실'에서는 출판물, 아카이브, 낭독 영상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와 말하기로 확장하며 이야기를 재경험한다.

문의 051)220-7355



무명도에 기대어 강영환 / 책퍼냄열린시

강영환 시인의 서른여덟 번째 시집으로 '섬'을 주제로 섬이 보내는 메시지와 섬으로서의 나를 마주하며 깊이 사유한다. 제1부는 섬에 관한 짧은 단상으로 34편의 섬이 지닌 의미와 의미를 깊이 사유하게 한다. 제2부에서 제4부까지는 서해·남해·동해의 실제 섬 85곳을 들여다보고 섬의 인상과 그곳 사람들의 삶을 93편의 시로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번 시집은 시인이 일생 동안 다닌 여행과 다큐멘터리를 통해 만난 섬들의 인상을 차곡차곡 기록해 낸 작품이다. 강영환 시인은 섬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자신을 비추어보며 내면의 갈등을 소탈하게 담아내고 삶과 존재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시는 한 편 한 편이 기록이자 기억으로서 섬의 고독함이 바람과 파도와 만나 아우성치고, 품고, 끊임없이 출렁이고 있음을 증명한다.



나무와 잎과 그물 강준철 / 육일문화사

문학 작품을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보며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탐색하는 평론집이다. 저자는 신비평, 형식주의, 구조주의, 독자 반응 비평 등 종합적인 비평 방법론을 제시한다. 1부에서는 현대 사회에 걸맞는 보편적인 시학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국 전위 시의 흐름을 살펴보고 미래의 시를 전망한다. 이어 2부에서는 여섯 명의 현역 작가를 선정해 신비평, 구조주의 비평, 독자 반응 비평을 원용한 작품론을 선보인다. 제3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시평 중 엄선한 17편을 담아 독자에게 다양한 비평의 세계를 열어준다. 저자는 시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며, 시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숨겨진 달항아리 정정욱 / 도서출판 작가마을

시인이자 수필가, 화가인 정정욱의 네 번째 시집이다. 이번 시집은 따뜻한 가족애와 불교적 정신세계로 바라본 삶의 풍경을 담아낸다. 1부 「벚꽃 바람 밟고 떠나신 어머니」와 2부 「어머니 오늘은 어느 딸이 보고 싶어요」 등은 부모를 향한 깊은 사랑과 기억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잔잔한 울림을 전한다. 3부에서는 「연등에 이름 달고」, 「염주와 묵주」와 같은 불교적 언어가 어우러져 시인의 내면세계를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시집 전반을 관통하는 '사랑'이라는 따뜻한 정서가 정정욱 시인의 사유를 통해 삶과 인연과 세상으로 확장된다.

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

모집일정

수시모집 또는 분기별 모집
누구나 선정가능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수강기간

2026년 1월 - 12월 (3개월씩 모집)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계좌번호

부산은행 310-01-001290-2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의전화

070-4206-9140

순번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요일및시간	장소	수강료
1	한국무용교실	20명	목) 13:00-14:50(심화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2		20명	목) 16:00-17:50(기초반)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3	즐거운 가야금교실	20명	수) 10:30-12:0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4	아랑고고장구	20명	수) 15:00-16:30	2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5	댄스스포츠	20명	화,목) 10:00-10: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6	라인댄스	20명	화,목) 11: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7	웰빙댄스	20명	월) 10:00-11:3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8	너도나도 방송댄스	20명	수) 10:00-11:50	4층 연습실	3개월 9만원
9	가곡교실	20명	수) 13:00-14:30	2층 연습실	*3개월 15만원
10	부채춤교실	20명	화) 15:00-16:30	4층 연습실	*3개월 12만원
11	사진아카데미(초급반)	20명	목) 10:00-11:50	4층 회의실	*4개월 12만원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비, 교재비 별도

*일정 및 수강료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요교실(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족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야2)사진작가협회간사회 05)631-4111 (3층전시장) 제6회 이영희개인전 색과 리듬의 조각 010-3571-5598 (4층전시장) 제3회 김미경 개인전 The Code of Beauty 작품 전시발표회 010-3169-9033	2 사진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야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632-5888 (3층전시장) 제6회 이영희개인전 색과 리듬의 조각 010-3571-5598 (4층전시장) 제3회 김미경 개인전 The Code of Beauty 작품 전시발표회 010-3169-9033	3 (3층전시장) 제6회 이영희개인전 색과 리듬의 조각 010-3571-5598 (4층전시장) 제3회 김미경 개인전 The Code of Beauty 작품 전시발표회 010-3169-9033	4 (3층전시장) 제6회 이영희개인전 색과 리듬의 조각 010-3571-5598 (4층전시장) 제3회 김미경 개인전 The Code of Beauty 작품 전시발표회 010-3169-9033
5 (3층전시장) 제6회 이영희개인전 색과 리듬의 조각 010-3571-5598 (4층전시장) 제3회 김미경 개인전 The Code of Beauty 작품 전시발표회 010-3169-9033	6 월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7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8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요교실(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족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9 사진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야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632-5888	10	11
12	13 월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3층전시장) 김경희 개인전 마음이머무른곳2 010-6474-6819	14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전시장) 김경희 개인전 마음이머무른곳2 010-6474-6819	15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요교실(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족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전시장) 김경희 개인전 마음이머무른곳2 010-6474-6819	16 사진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야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632-5888 (3층전시장) 김경희 개인전 마음이머무른곳2 010-6474-6819	17 (3층전시장) 김경희 개인전 마음이머무른곳2 010-6474-6819	18 (3층전시장) 김경희 개인전 마음이머무른곳2 010-6474-6819
19 (3층전시장) 김경희 개인전 마음이머무른곳2 010-6474-6819	20 월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Who loves old thing 05)631-1377	21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Who loves old thing 05)631-1377	22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운 가요교실(2층연습실) 10시30분-12시 가족교실(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아랑고장구(2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Who loves old thing 05)631-1377	23 사진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 16시-17시50분 (야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632-5888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Who loves old thing 05)631-1377	24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Who loves old thing 05)631-1377	25 (오전오후)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청소년예술제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05)612-2604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Who loves old thing 05)631-1377
26 (3층, 4층전시장) 문화가있는날 : 예감 Who loves old thing 05)631-1377	27 월빙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30분	28 댄스포츠(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연습실) 11시-11시50분 부채춤교실(4층연습실) 15시-16시30분 (3층, 4층전시장) 나홀렐 개인전 Traces On the Road 010-5216-8472	29 (3층, 4층전시장) 나홀렐 개인전 Traces On the Road 010-5216-8472	30 한국무용교실 심화반 (4층연습실)13시-14시50분 한국무용교실 기초반 (4층연습실)16시-17시50분 (야2)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632-5888 (3층, 4층전시장) 나홀렐 개인전 Traces On the Road 010-5216-8472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김 성 주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술로 감성을 전하다

예감

2026년 2월-12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시장

공연 19:00 / 전시 10:00 open



- 2.4.(수) 음악하는 사람들 Music in <외그작!! 달빛 아래 동물의 사육제>
- 2.6.(금) 운사당: 정자경 가야금병창 아지트 <소리, 바다를 건너다>
- 2.11.(수) 해낙낙 <도니제티 오페라-사랑의 묘약>
- 3.9.(월) ~ 3.15.(일) 허종자 <지은 허종자 개인전>
- 3.23.(월) ~ 3.29.(일) 홍찬호 <홍찬호의 시간여행전>
- 4.20.(월) ~ 4.26.(일) 파티나 컨트리 <who loves old thing>
- 6.8.(일) ~ 6.14.(일) 나연희 <제27회 나연전>
- 6.22.(월) ~ 6.28.(일) 김덕용 <글뎌 김덕용 서예전>
- 7.13.(월) ~ 7.19.(일) 부산미술서예작가회 <부산 미술 서예작가회전>
- 7.27.(월) ~ 8.3.(일) 부산문인협회 시분과 <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
- 8.17.(일) ~ 8.23.(일) 부산예술건축문화회 <공간의 여정>
- 8.24.(월) ~ 8.30.(일) 부산미술협회 수채화분과 <숨겨진 얼굴, 물빛으로 피어나다>
- 9.7.(일) ~ 9.13.(일) 이동욱 <이동욱 개인전-시선이 머문 자리>
- 11.4.(수) 아미티에 성악연구회 <사계>
- 11.11.(수) 부산시민윈드오케스트라 <부산, 바람의 시작>
- 11.18.(수) 부산아이디발레단 <렉처 퍼포먼스 발레리노가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발레>
- 11.25.(수) 더부산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더부산필하모니아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클래식>
- 12.2.(수) 이바디예술단 <술가락 젓가락 들고 떠나는 메구놀이(풍물) 및 기행>
- 12.9.(수) 춤과사람 <추풍연(秋風宴)>
- 12.16.(수) 원기동 국악예술단 <사노라면-화류춘몽>

제40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The 40th Busan Youth Arts Festival



- 부산청소년예술제 개막식 4. 25.(토)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
- 청소년 건축상상마당 5. 16.(토) 부경대학교 C22동(건축관) 105호
- 청소년국악제 5. 23.(토)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청소년무용예술제 4. 15.(수)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청소년 시낭송대회 5. 16.(토) 서면 영광도서 8층 문화홀
- 학생그림공모전 5. 18.(월) ~ 5. 23.(토)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 학생사진공모전 5. 20.(수) ~ 5. 23.(토) 부산시민회관 1층 전시실
- 찾아가는 푸른새싹공연예술축제 - 청소년예술어울마당 5. 9.(토) / 5. 16.(토) 백양문화예술회관
- 2026 청소년 K-POP 페스티벌 5. 23.(토) 부산예술회관 야외 광장
- 부산청소년음악회 5. 15.(금)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청소년꽃다발만들기대회 4. 25.(토) 부산예술회관 회의실 / 4층 연습실
- 부산청소년 세계차문화예술제 4. 25.(토) 부산은행 본점

개막식
4. 25.(토) 14시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
**2026. 4. 15.(수)
- 5. 23.(토)**
부산예술회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부산은행본점

주최 | (사)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관 | 부산건축가회 부산국악협회 부산무용협회 부산문인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사진작가협회 부산연극협회 부산연예예술인협회 부산음악협회 부산꽃예술작가협회 부산차문화진흥원

후원 | 부산일보사 | K국재신문 | KBS 부산방송총국 | 부산MBC | KNN

특별후원 | BNK 부산은행 | KYOBO 교보생명 | 부산FP본부

문의 | (사)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TEL. 051)631-1377 www.artpusan.or.kr/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문화의 예술의 즐거움을 누구에게나!

오늘도 두근두근 BNK는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부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BNK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계속 됩니다

Play on Busan
문화공연



범시민 도서교환전



부산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부산은행
갤러리



부산은행 창립기념 음악회

정가 5,000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